

## 〈스카이코비드19〉 SK, 치료제 상표 출원 코로나 백신 개발 속도

동물실험 돌입...9월 임상 목표  
최태원 회장 “SK의 사회적 역할  
건강·안전 우선...최선 다해달라”

SK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의 상표를 출원하며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SK케미칼의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달 29일 ‘스카이코비드19(SKYCOVID19)’라는 상표권을 출원했다. ‘스카이코비드19’라는 상표는 감염질환치료용 약제, 바이러스 백신, 인체용 백신 등으로 설명 및 분류돼 있다. 이번 상표 출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전 선제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질병관리본부가 공고한 합성항원 기반 코로나19 서브유닛 백신후보물질 개발사업에서 우선순위 협상자로 선정되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전사적인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후보 물질 발현에 성공하며 본격적으로 동물 효력 시험 단계에 돌입했다. 이 회사가 확보한 백신 후보 물질은 서브유닛(바이러스 일부를 포함한 항원) 형태로 다른 백신에 비해서 높은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바이

러스가 변형돼도 자체 기술과 플랫폼으로 백신을 개발, 상용화하고 있어 변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물 효력시험 단계에서 효력이 확인되면 비임상 시험에 돌입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이르면 9월 임상 1상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곧 SK의 사회적 역할이라며 개발 경과를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7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개발 담당 구성원들과 화상으로 만나 “코로나19가 확산될수록 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개발에 대한 관심이 압박감으로 다가와 힘들겠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 회장은 “백신 개발을 위해서 때로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도 출장을 간다고 들었다”며 “백신 개발의 전제 조건은 SK바이오사이언스 모든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인 만큼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백신 개발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

돌연변이가 많은 RNA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전 세계에 거의 없고, 현재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신약 중에서도 효과를 입증한 것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주말인 3일 스타필드 고양점 내 매장이 마스크를 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6일부터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 6일부터 공공·체육시설 운영 단계적 재개

45일 만에 ‘생활방역’으로 전환  
등교수업 시기·방법 오늘 발표

3월 22일부터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5일 종료된다. 운영이 중단됐던 시설들이 재개되고, 등교수업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6일부터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밀집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가 총 127명으로 일평균 10명을 밀도는 등 국내 발생 추이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정 총리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18일이 지났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있고 집단 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다”며 “아직 대내외 위험은 여전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등교수업은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구체

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4일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안정세가 이어지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도 검토한다.

다만 전반적인 방역체계와 방역지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 박승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라며 “국가방역체계도 감염통제 상황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사이에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글로벌 투자자들 ‘신흥국 엑소더스’

100일간 1000억 달러 유출...금융위기 때보다 4.2배 빨라

글로벌 경제위기 ‘새 불씨’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신흥국에서 앞다퉈 이탈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중국에서 본격화한 1월 20일을 기점으로 4월 29일까지 100일간 신흥국에서 유출된 역외 자금이 1000억7000만 달러(약 122조 원)에 달했다고 3일 일본 니혼게이지아이신문(닛케이)이 국제금융협회(IIF)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100일간의 유출 속도를 과거와 비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약 236억 달러)의 4.2배, 2015년 중국 증시 버블 붕괴(약 95억 달러)의 11배에 달해 이번 코로나19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신흥국에서 가속화하는 재정 악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갈수록 고조된 것이 이번 유출의 주원인이라고 닛케이는 풀이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민간수요 침체에 대응하고자 각국이 경제대책과 의료서비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재정지출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18%에 달하는 경제대책을 펼

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재정 규율 관련 규정 시행을 현재 일시적으로 보류한 상태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신흥국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8.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반년 전 예상한 것보다 1.8배 팽창한 것이다. 브라질 등 상유국은 유가 폭락 충격도 같이 받고 있다.

또 이런 자금 유출은 현지 통화 가치의 급속한 하락으로 이어져 그만큼 신흥국들의 달러 표시 부채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자금 공급으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았지만 신흥국이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월 이후 20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중기적으로 하향 조정 우려가 있는 국가들도 15개국에 이른다.

한편 신흥국 부채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쌓이면서 세계 경제의 미래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IIIF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정부·민간 부문 부채는 71조 달러로 사상 최대이며 전 세계 GDP의 2.2배에 이르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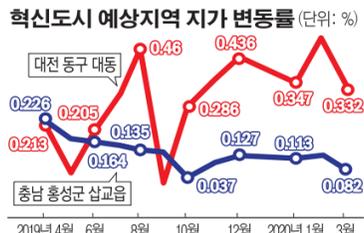
## 지방 부동산 들쭉신 ‘혁신도시 시즌2’

스페셜 리포트

요새 충청지역의 부동산시장 화두는 ‘혁신도시’다. 혁신도시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비(非)수도권으로 이전시켜 이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신도시다. 대전은 동구 대전역 일대, 충남은 예산군·홍성군(내포신도시) 등 구체적인 입지까지 내놨다.

혁신도시 개발을 바라는 곳은 충청뿐 아니다. 영남권과 호남권 시도들도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을 끌어오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옮겨오고 혁신도시가 생기면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관련기사 4면

이들 지역의 기대감을 키운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승리다. 혁신도시 신설·확대가 현실화하면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이 된다. 현재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분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은 160곳이다. 이 가운데 직원 수가 1000명이 넘는 한국마사회, 한국환경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대어로 꼽힌다. 1차 이전 때는 혁신도시 10곳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153곳



수도권 공공기관 160곳 이전 거론  
예상지역 땅값 벌써부터 경증 뛰어

이 수도권을 떠나 새 동지를 틀었다. 여권에선 관련 법을 통해 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도 이전 대상에 포함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다.

공공기관 이전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부동산 시장도 들쭉이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당연히 이들 기관 직원이 목을 주먹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예상 지역에선 벌써부터 부동산 가격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내포신도시 목리에선 지난달 상업용지 실거래가가 3.3㎡당 750만 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내포신도시에서

거래된 토지 최고가는 3.3㎡당 699만 원이었다. 재개발을 추진 중인 대전역 인근 대전 동구 신안동에서도 지난해 3.3㎡당 400만 원에 거래되던 단독주택 대지 지분이 이달 들어선 600만 원으로 뛰었다.

이 때문에 불분명한 호재를 과장 광고하면서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속여 파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 카페 등에선 구체적인 혁신도시 입지를 콕 집어 투자를 권하는 매물이 적잖게 올라오고 있다. 1기 혁신도시를 조성할 때도 ‘뺨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과 토지 매점매석, 쪼개기 판매 등이 횡행하는 바람에 전국이 몸살을 앓았다.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에 더해 지역 활성화 정책까지 추진한다면 혁신도시 2기는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나친 유지 경쟁으로 그런 의미가 훼손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 석유 -97%·자동차 -65%... 2분기 '실적 쓰나미' 온다

상장사 138곳 예상 영업익 20兆  
3개월 전 전망치보다 27% 줄어

현대위아, 하락폭 최대 '-97%'  
'진단키트 생산' 씨젠 126%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올해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바닥을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 상장사들이 예상보다 양호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하는 2분기 실적은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낸 주요 상장사 138곳의 2분기 영업이익은 총 19조9719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3개월 전 전망치(27조2502억 원), 1개월 전 전망치(24조6925억 원)보다 각각 26.71%, 19.12% 감소한 수치다. 전년 동기(22조3155억 원)와 비교해도



10.50% 감소한 수준이다.

2분기 상장사의 매출액과 순이익 전망치는 318조9131억 원, 14조5511억 원으로 이 역시 1개월 전 전망치 대비 각각 8.44%, 17.50%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6.32%, 순이익은 2.86%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가스(-97.1%), 자동차(-64.8%), 자동차 부품(-51.6%), 금속 및 광물(-38.8%) 등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새 크게 떨어졌다.

종목별로는 현대위아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1개월 전 대비 97.1% 감소해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현대제철과 GKL(각 -92.9%), 기아차(-65.3%), 현대차(-64.6%) 등이 이었다.

LG디스플레이와 제주항공, 하나투어, CJ CGV 등은 1개월 전과 비교할 때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1개월 전만 해도 2분기 영업 흑자가 예상됐던 S-Oil과 SK이노베이션, 호

텔신라, 파라디스 등은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 달 새 영업이익 전망치가 오른 종목은 25개였다. 진단키트 생산업체 씨젠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개월 전 대비 125.7% 증가했다. 대우조선해양과 농심(각

26.6%), SK하이닉스(26.2%)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7조1959억 원으로 1개월 전 전망치(8조2726억 원)보다 13% 감소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타격으로 국내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은 더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상장 기업 이익의 80% 이상은 수출이 차지한다"며 "선진국 경제가 한 달 넘게 봉쇄 상태여서 2분기의 3분의 1 이상은 사실상 장사를 못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에서 차츰 봉쇄가 풀린다고 해도 당장 수출이 살아나기 어렵다"며 "국내 상장사 실적은 2분기 바닥을 찍고 난 뒤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대명 기자 kodae0@

## 코로나가 바꾼 황금연휴 소비 패턴 해외여행 대신 명품백 샀다

신세계백, 명품 매출 27% 신장  
롯데백, 리빙용품 판매 30% ↑

코로나19가 국외로 번지며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줄자 황금연휴를 앞둔 소비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여행 가방이나 수영복 등 해외여행을 겨냥한 여행상품 매출은 크게 줄었고 대신 명품을 찾는 소비자는 두 자릿수 신장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석가탄신일인 4월 30일부터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 이어진 올해 유일한 황금연휴를 앞두고 연휴 직전 열흘간 백화점 실적을 보니 2017년과 상반된 매출 추이를 보였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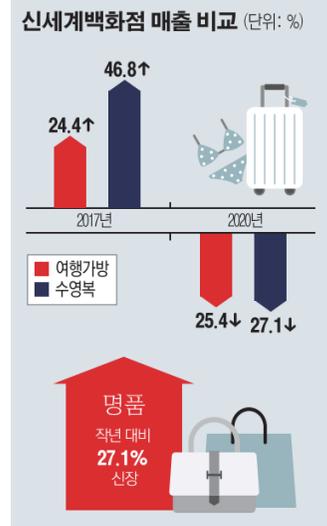
2017년(4월 21~30일)에는 해외여행 수요가 몰리며 여행 가방 매출이 전년 대비 24.4%, 수영복은 46.8% 늘었지만, 올해는 각각 -25.4%, -27.1%의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연휴를 위해 준비한 여운돈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면서 관련 장르는 지난해보다 27.1% 신장했다.

롯데백화점에서도 황금연휴를 앞두고 명품을 찾는 소비자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24~26일 롯데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세(-18.1%)를 기록했지만 이 기간 명품을 포함한 해외 패션만 유일하게 성장해 전년 대비 매출이 12% 올랐다.

연휴를 맞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것도 소품 흐름을 바꿨다. 신세계백화점에서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집 꾸미기 관련 품목 매출을 살펴본 결과 전년 대비 15% 늘었다. 롯데백화점에서도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리빙 매출은 전년 대비 30% 신장세를 기록했다.

나들이 룩으로 꼽히는 아웃도어도 잘 팔렸다. 해외가 아닌 국내로 발길을 돌린 고객들이 관련 장르 실적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2017년(4월 21~30일) 전년 대비 7.4%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던 아웃도어 장르는 올해(4월 20~29일) 14.6% 신장했



다. 롯데백화점에서도 4월(1~19일) 아웃도어 매출은 전년 대비 5% 성장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연휴 이후에도 나들이 관련 제품의 인기가 지속할 것으로 보고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대구 신세계에서는 8일부터 14일까지 7층 이벤트홀에서 블랙야크 등 아웃도어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이번 제안전에는 블랙야크, 블랙야크 키즈를 중심으로 마모트, K2, 네파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아웃도어 패밀리룩을 판매한다.

이어 강남점 7층 캠핑용품 전문매장 '홀라인'에서는 다양한 캠핑용품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는 공기주입식 텐트 124만8000원, 캠핑용 의자 12만 원, 일체형 침낭 26만2000원, 토치 2만2000원, 초소형 스토브 3만7000원 등이 있다.

이성환 신세계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는 "이번 황금연휴에는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이 주목받으며 아웃도어 등 근교 나들이 관련 상품과 명품·집콕 관련 상품들이 호조를 보였다"며 "5~6월에도 가족 단위 나들이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아웃도어 및 캠핑용품 제안전을 통해 고객 선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 “무역적자 당분간 지속”... 한국 경제에 복합 타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99개월 만에 나타난 무역적자 적자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해당국의 경기 침체가 지속돼 우리 수출 추락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9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1월 23억2000만 달러 적자 이후 8년 3개월 만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주요국 수입 수요 급감, 중국 경기 회복 지연과 여기에 유가 급락 등이 더해지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앞으로 수출 감소세가 더 이어지며 무역수지 적자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견디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달 미국으로의 수출은 하루 평균 기준 전년보다 5.6%, 전월보다는 21.3% 줄었다.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액은 올해 들어 가장 작은 2억 달러였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2월 하루 평균 수출이 10년 만에 4억 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3~4월 들어 회복세에 들어섰으나 아직 작년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른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상황도 급격히 좋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에 5월을 '바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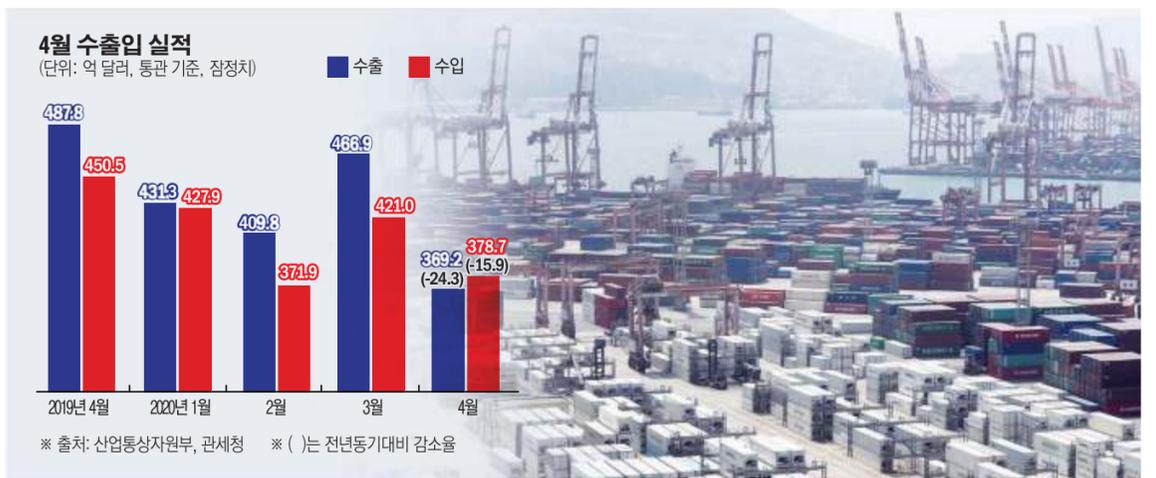
코로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주요 교역국 경제 불확실성 여전 99개월 만에 9억 달러 무역적자

중소 65.9%·중견기업 63.6% “코로나19로 수출 부정적 영향” 피해기업 지정 등 맞춤형 지원 절실

계적인 코로나19 사태가 단기에 안정된다면 2분기까지만 수출이 감소하고 이후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불안이 더 이어진다면 수출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수요 측면에서의 수출 감소는 한국 성장률에 복합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세계 성장률이 낮아지면 우리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한국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은 중소·중견 수출 기업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소·중견 수출기업 400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영향 설문 조사 결과 중소기업 중 65.9%, 중견기업 중 63.6%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직면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이 말하는 부정적 영향은 수출 마케팅 행사의 취소, 통관·유통의 지연, 수출품 생산 및 계



약 차질 등 복합적 요인이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상황 악화가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 애로로는 매출 실적과 영업 이익을 악화, 원·부자재 부족, 수출대금 회수의 연기·지연 등을 꼽았다.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지원 대책으로는 △원·부자재의 안정적

확보(27.6%) △거래선 다변화(23.9%) △공공 구매 확대(13.6%) △수출 및 판매대금의 원활한 회수(12.9%) 등의 응답이 많았다.

이영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의한 해외수요 위축이 심화되면서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 강화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급격한 수출 타격을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피해기업 지정 등을 포함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강화해 피해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열심히 만들어도 내다팔 곳 없다” 산업계 ‘눈물의 휴업’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시장 수요가 감소하자 산업계가 생산량 조절에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글로벌 TV·가전 공장 대부분이 4일부터 전면 재가동될 전망이다.

2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9개국, LG전자는 7개국에서 공장 섯다운(일시 폐쇄) 조치를 취했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6주까지 가동을 중단했다.

해외 모든 공장이 재가동에 들어갈 수도 회복이 문

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달 29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2분기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해외 시장

의 유통 매장은 여전히 문을 닫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장 가동 중단 여파, 시장 수요 침체, 유통 난항 등 2분기에 삼중고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삼성전자의 1분기 TV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20% 후반대로 감소했고, 2분기도 10% 초반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분기 판매 계획 조정이 불가피하다. 국가별 상황에 맞게 신모델 판매 시점을 조정하고 프로모션 마케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TV 사업의 해외 매출비

중이 기존 90% 이상에서 90% 미만으로, 가전사업 해외 매출 비중은 65%에서 5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LG전자는 “2분기 생활가전의 해외 매출 비중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최대한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종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의 판매가 급감한 데다 현지 부품 조달도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징검다리 연휴’

(30일~5월 5일)를 전후해 추가 휴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는 석가탄신일인 지난달 30일부터 어린이날인 5일까지 전체 공장 조업을 중단한다. i30, 아이오닉, 베뉴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3공장은 연휴에 이어 6~8일 추가로 임시 휴업한다.

기아차도 경기 광명 소하리 1·2공장 과 광주 2공장은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휴업을 시작했다. 8일까지 공장 문을 닫고 주말을 보낸 뒤 11일 다시 문을 연다. 소하리 1·2공장은 22~25일에도 공장 문을 닫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유럽 등 자동차 수요가 급감해 수출 주문이 줄고, 달러당 가동률도 떨어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 절벽을 맞아 재고 조절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롯데칠성음료



- 1970년 완행열차 카트 속에
- 1988년 동네 돼지갈비집에
- 1998년 소녀시절 소풍날에
- 2002년 외할머니댁 화채 속에

청량한 기억이 있는 모든 순간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진짜사이다는 그곳에 칠성사이다 70th Anniversary

# 땡땡거린 공약에 돈 몰리는 땡땡... “실부른 투자 금물”

### ‘혁신도시 시즌2’ 지방집값 들썩 與 당선인들 앓다뒀 “공공기관 유치” 수혜지 꼽힌 대전, 총선後 매매문의 ↑ “기획부동산 유입” 소문 투자주의보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2차 혁신도시 예상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당정이 드라이브를 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2차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지방의 신규 주택 공급과 맞물린 빨대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 명목으로, 집값 상승효과는 1차 혁신도시에서 입증된 바 있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분양 사기 등 이른바 기획부동산 문제가 다시 요동치는 형국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에도 아랑곳없이 서울 강남권과 제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 중에서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기대되는 지역의 오름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중이다.

당정은 수도권 소재 120여 개 공공기관을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혁신도시 지정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대전은 집값 우상향 곡선이 전국에서 가장 뚜렷한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전은 2018년 6월부터 매매가격 변동률이 지속 상승하는 중이다. 특히 총선이 임박하면서 지난해 11월 1.21%, 12월 0.97%에 이어 올해 1월 1.57%, 2월 0.88% 등 높은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기름을 붓는 총선과 혁신도시 호재를 놓고 기획부동산 움직임이 감지된다. 돈을 가진 전주들과 이를 노린 사기집단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다.

대전 R부동산 관계자는 “이전에도 아파트 값 오름세가 좋았지만 총선 이후에 특히 매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달 구룡동 둔곡지구 3블록에서 760가구 규모의 분양에 들어가는데, 이와 관련해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흘러나온다”고 귀띔했다.

정치권에서도 투자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익산을 지역구에서 2선에 성공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단계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관철시켜 익산에 전주의 국민연금공단처럼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실부른 투자는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선인들이 제시한 부동산 개발 공약은 정부나 당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실제 정책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분양 사기를 비롯해 많은 기획부동산 문제가 야기됐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2차 혁신도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 전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투자를 결정하는 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선제적 투자로 고수익을 노리는데 고위험이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올해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5곳, 기타공공기관 209곳 등 총 340 곳이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혁신도시 4만2000명을 비롯해 세종시 4000명과 개별이전 6000명 등 총 5만2000여 명이 기관을 따라 지방으로 이전했다.

공공기관이 새 동지를 둔 지역들의 집값은 덩달아 상승했다. 정부청사가 자리한 세종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세종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9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민주당은 현재 122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전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가능한 많은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1차 혁신도시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기획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 지방이전 공공기관, 옛 사옥 매각 골머리

### LH 오리 사옥 등 안 팔린 시설 11곳... “거래방식·용도변경 고려해야”

2009년 경남 진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오리 사옥을 매물로 내놓았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 LH는 무려 14차례에 걸쳐 오리사옥 매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의 마칩표를 찍기 위해서는 오리 사옥 매각이 필요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LH뿐만이 아니다. 2002년 12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제주 혁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까지 무려 16년 동안 이전 작업을 진행했으나 아직 종전부동산(지방 이전 공공기관 보유 수도권 사옥)을 매각하지 못한 기관이 11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119구

조본부(남양주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안양시) △한국광해관리공단(서울 종로구) △한국교육개발원(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초구) △한국산업단지공단(구로구) △한국예탁결제원(고양시) △한국인터넷진흥원(서초구) △한국전력기술(용인시) △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시) 등이다. 이들 부동산의 매각 예정 금액만 해도 감정가 기준 1조1057억 원에 달한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앞서 공공기관 1차 이전으로 발생한 종전부동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1차 종전부동산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원인을 파악하고 매각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부동산 개발업계 관계자는 “공공기

관 사옥의 경우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은 데다 매입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매각이 어려운 것”이라며 “매각 방식 변화와 함께 계약 조건 완화뿐 아니라 용도 변경 전체 매각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데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이적지에 공공주택 등을 건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생기는 공간을 신규 주택 부지로 활용해, 종전부동산 매각 시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여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문선영 기자 moon@

재미

공감

위로

##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짬짬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유튜브 채널 브라보 짬짬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짬짬 TV)

구독 문의 (02) 799-2680

# “배민 독과점 대안이 공공앱? ‘서울 택시앱’ 실패 잊었나”

##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미래한국당 최승재

“배달의민족은 혁신을 한 게 아니다. 독과점하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생태계 파괴자가 될 수 있다.”

최승재 미래한국당 당선자는 지난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서 최 당선인이 가진 신념은 분명했다. 시장 독점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견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다만 최 당선인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드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승재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지난주 인터뷰에서 중기부를 향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 예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최 당선인은 PC방 사장 출신으로 2015년 초대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 당선됐다. 2018년 재선돼 2021년 3월까지 임기였으나 총선을 위해 올해 2월 사퇴했다. 미래통합당 영입 인재인 그는 통합당 외 정당에서도 러브콜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최종 선택으로 통합당으로 한 데 대해 “원내 진입 가능성을 봤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의원 배지가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며 “황교안 대표가 몇 번에 걸쳐 ‘도와달라’며 진정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명단 발표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최 당선인을 포함한 황교안 전 대표의 영입 인재가 처음 비례대표 명단에서 대거 밀려나면서다. 최 당선인은 당시를 회상하며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며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 당시 감정도 크게 기쁘거나 감흥이 있지 않았다”며 “무거운 책임감 탓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소상공인 현안에서 가장 뜨거운 문제인 배달 앱과 관련해 그는 배달의민족의 사업 모델이 과대평가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당선인은 “전단지를 뿌리던 방식에서 홍보 방식을 바꾼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이를 산업 전체의 혁신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인수합병 승인으로 독과점이 되면 소비자와 협상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자 지자체,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공공 배달 앱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군산시는 3월 공공 배달 앱 ‘배달의명수’를 출시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최 당선인은 이 같은 공공 배달 앱은 결코 대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싸다고 정부나 지자체가 다 하나”고 반문하며 “정부의 역할은 ‘교통정리’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공공 앱 개발이 실패로 귀결한 예를 들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2017년 승차 거부를 없애겠다며 택시 호

공공 택시호출앱 인기 없어 폐쇄 정부, 룰 만들고 교통정리까지만 상생법 온라인 부문 보완도 방법

### 정부, 소상공인 ‘패닉’ 관리 못해 코로나19에 올면 사탕 주는 식 대출예산 소진 투명하게 밝혀야



**약력** 양평 양서고등학교 졸업 /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2015~2020년) /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2018~2020년)

출 앱 ‘지브로(GBRO)’를 개발했지만, 승객과 택시기사의 사용자 저조로 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생각하는 대안은 공정한 룰을 정하고, 이 규칙을 잘 지키는지를 정부가 잘 감시하는 것이다.

그는 “온라인 상생 진흥법(가칭)”을 만들어 규칙을 정해야 한다”며 기존 상생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꼽았다.

이외에 최 당선인은 소상공인 복지법 발의, 소상공인청 설립 등을 자신의 향후 과제로 내놨다. ‘소상공인 복지’가 꼭 필요한 개념인데도 올해 1월 제정된 소상공인 기본법에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시기에 더욱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청은 소상공인 관련 현안을 중 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도맡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현재 중기부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소

상공인, 스타트업, 유니콘(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등을 전담한다. 최 당선인은 “소상공인 분야가 중기부가 다루는 넓은 영역 중 하나이다 보니 행정 효율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소상공인이 속한 현안도 중기부에만 국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 정국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심리적 패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중기부가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자금 대출 접수를 4월 16일 자정에 중단했다가 이후에 다시 철회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17일 최 당선인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이 같은 행정 처리에 대해 “아마추어식”이라고 비판하며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정책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등 예산 소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올면 사탕 하나 주는 식으로 보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면, 소상공인은 우왕좌왕하는 정부를 보고 심리적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기부에 쓴소리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타 부처와 달리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신생 부처라는 특성 때문이다.

최 당선인은 “중기부는 행정에만 머물러 부처가 아닌 현장 목소리를 담은 부처”라며 “굳어 있는 공직 사회와 달리 더 열정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열정을 결과로 보여줄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현안만큼은 정당을 초월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를 초월한 소상공인 공동 여젠대를 만드는 것이 그의 임기 내 목표이기도 하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 당선인은 자신이 먼저 손 내밀어 여야 의원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누볐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에서만은 자신감을 보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능력 쇼핑

실력 300% UP ▲  
개발 200% UP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 HMM·장금상선·KG·삼양·IMM, 대기업집단 편입

지난해 반도체·석화 업황 부진에 대기업 순익 '반토막'  
삼성 19조·SK 14조 줄어... 5대 그룹 실적현상 완화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이 반도체 및 석유화학 업황 부진 등으로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여파로 5대 그룹으로의 자산 쏠림 등 양극화 현상이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내놓은 '2020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지정 자료(2019년 12월 말 회계연도 기준)'

에 따르면 5월 1일 지정 64개 공시집단의 매출액은 1401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조4000억 원 감소했다. 상위 집단인 SK(22조4000억 원 ↓), 삼성(13조8000억 원 ↓), GS(5조5000억 원 ↓)의 매출액이 반도체 및 석유화학 업황 부진 등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매출 급감으로 당기순이익(48조 원)도 전년(92조5000억 원)보다 44조5000억 원 줄었다. 삼성(19조7000억 원 ↓), SK

(14조7000억 원 ↓), LG(3조5000억 원 ↓) 순으로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난해 거둔 공시집단의 매출액이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48.1%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공시집단의 경영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 영향으로 기업집단 간 수익성 격차는 완화됐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상위 5개 집단이 각각 전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1%에서 55.7%로, 72.2%에서 68.5%로 줄었다.  
상위 5개 집단에 편중된 자산 쏠림 현상

도 다소 완화됐다. 64개 공시집단의 자산 총액(2176조1000억 원)에서 상위 5개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52.6%로 전년보다 1.4%포인트(P) 줄었다.  
정 국장은 "올해 실적현상 완화는 반도체나 석유화학 등 상위 집단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종 불황에 따른 영향이 컸다"며 "이는 업황에 따라서 5대 그룹 실적현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공시집단에 HMM(옛 현대상선)과 장금상선, KG, 삼양, IMM인베스트먼트 등 5곳이 새로 편입됐다. 이 중 IMM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사모펀드

(PEF) 전업집단으로선 처음으로 공시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시집단이 된 이들 집단은 대규모 내부 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 현황공시 및 주식 소유현황신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시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상출집단)은 34개로 전년과 동일했다. 대우건설이 새로 지정되고, OCI가 지정 제외된 결과다. 상출집단은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견권 제한 등의 규제도 받는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코로나 확산 통제 판단...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유지

"경계심 느슨 우려"... 강제 격리 해제, 입출국 제한 그대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기로 한 것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했다는 판단에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날보다 13명 증가한 1만793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신규 확진자가 소폭 늘었으나, 추이상으론 10명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최근 2주간 신고된 신규 확진자 127명 중 지역 집단발병 및 선행 확진자 접촉은 각각 9명(6.8%), 11명(8.3%)에 불과했다.  
방역당국은 3월 22일부터 공공시설 폐쇄, 고위험 민간시설 운영중단 권고 및 행정명령 등 '강제적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6일부터 이룬 강제적 격리는 해제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곧 '일상로의 복귀'를 의미하진 않는다. 해외 유입과 더불어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신고입을 기준으로 해외 유입 사례는 16주 74명에서 17주 36명으로 줄었으나, 18주 49명으로 다시 늘었다. 해외 입국자는 미진단 상태에서 자가격리 이탈로 인한 추가 전파나 가족 전파로 이어지면 3·4차 감염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다. 같은 이유로 입출국 제한은 해외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특히 이날 추가된 13명 중 지역발생 3명(대구)은 모두 감염원이 특정되지 않은 사

례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중에선 이날 사례를 포함해 총 9명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최근 2주간 10여 명 발생했는데, 이들 확진자의 감염원이 지역 사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최근 들어 또한 의심환자 신고와 검사 건수가 감소했는데, 집단발병이나 지역감염 사례가 감소한 이유도 있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따라서 강제적 격리만 해제될 뿐, △아프면 집에서 머물기 △두 팔 간격 거리두기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개인 방역수칙과 방역지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 본부장은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이번주 '한국판 뉴딜' 윤곽... 원격의료·교육 육성할 듯

비대면 산업 제도적 기반 마련  
이르면 이주 중 경제 반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 흥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안전으로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로, 디지털 기반의 의료·교

육 등 비대면 산업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및 투자·육성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원격의료와 원격교육이 거론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 영리화' 논란과 의료계의 반대로 10년째 시범사업 형태로만 추진 중이다. 현행법 테두리에서도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가능하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환경에선 간호사 등 의료인 방문이 어려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격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떠오른 대안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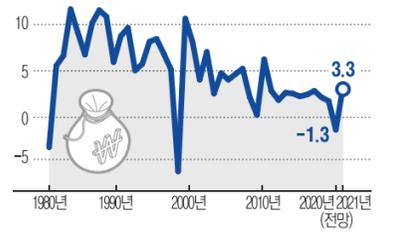
교육 형태다. 단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돼 재원 마련 방안이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 IT를 접목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주요 프로젝트로 꼽힌다.  
한국판 뉴딜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1000억 원)으로 추진되는 고용안정 대책과 별도의 대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추경으로 재직자 고용안정 및 실직자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 55만 개 등을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IMF "한국 1인당 GDP 1.3% 감소"

구매력 기준... 외환위기 후 처음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올해 한국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90%에 달하는 국가에서 올해 1인당 GDP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4월 세계경제 전망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실질 GDP는 지난해보다 1.3% 줄어들 전망이다. 전망대로라면 IMF 국제금융 사태를 겪었던 1998년(-5.8%) 이후 22년 만에 첫 감소를 기록하게 된다.

영국 -7.0% 등이다. 경제 규모가 큰 국가 중에선 중국(0.9%)만 마이너스를 면할 전망이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감소 폭은 양호한 수준이다.

PPP 기준 1인당 실질 GDP는 각 나라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은 석유파동을 겪었던 1980년(-3.2%)과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8년 두 차례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2.2%)과 2009년(0.3%), 유럽 재정위기가 터진 2012년(1.9%)에도 PPP 기준 1인당 실질 GDP는 감소하지 않았다.

IMF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부터 2020년에 훨씬 더 많은 국가가 PPP 기준 1인당 실질 GDP 감소를 경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에는 전 세계 국가의 62.3%가 PPP 기준 1인당 실질 GDP가 감소했지만, 올해에는 비율이 90.3%로 급등한다고 예상했다.

올해 전망의 주된 배경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다. IMF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 PPP 기준 1인당 실질 GDP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별로 미국은 -6.4%, 일본 -4.8%, 독일 -7.0%, 프랑스 -7.4%, 이탈리아 -8.9%,

단 국가마다 국민의 생활 수준이 달라 증가율만 놓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실질 GDP는 3만6777달러로 미국(5만5719달러), 독일(4만5936달러), 일본(3만9294달러)보다 낮다.

정 본부장은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한편, IMF는 올해 전 세계의 PPP 기준 1인당 실질 GDP가 4.2% 감소하나 내년에는 4.6%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3.3% 증가를 예상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기업 3월 채용도 25% 줄었다

속박·음식업 구인 54% 폭

구인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속박·음식업에서 3110명(54.1%) 급감했다.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은 1896명(42.0%), 도·소매업은 3543명(28.6%) 줄었다. 제조업의 구인 규모도 1만8677명(25.7%) 감소했다.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에서도 인력 수요가 크게 위축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내 기업의 채용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공공 취업 지원 포털 '워크넷'을 통한 기업의 신규 구인 규모는 14만488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만6982명(24.5%) 급감했다.

구인 규모를 지역별로 봐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여실히 드러났다.  
3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했던 대구와 경북은 신규 구인 규모가 각각 2465명(34.4%), 3124명(30.7%) 급감했다. 서울은 6361명(28.0%), 경기도는 1만4872명(25.3%) 줄었다.

구인 규모는 기업이 인력 채용을 위해 워크넷에 등록한 구인 인원을 합한 것이다. 월별로 집계되는 워크넷 구인 규모는 등락을 반복하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3월 구인 규모 급감은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많은 기업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채용 중단 또는 연기하고 있다. 구인 감소의 영향으로 3월 워크넷을 통한 신규 취업도 13만4368건으로 전년보다 4만3226건(24.3%) 줄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올해 3월 구인 규모 급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위축의 영향을 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면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구인이 줄었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여보!  
 요즘 상황이 힘들어도 되도록이면  
 내색을 하기 싫어서였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네.  
 내가 잦았던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된 건지.  
 이런 현상이 버거운 때도 있지만  
 가족이 있어서, 힘들다는 생각은 멀리 떨어지려.

하린잉마!  
 이제까지처럼 이번에도 잘 이겨낼 거야.  
 시간이 지나서 웃음 돌아보며 손 잡고 웃음 낚이 있을 거야.  
 오래전에 당신이랑 봤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처럼  
 웃으며 이번의 위기도 이겨내고 당신과 하린이를 지켜낼게  
 이번에 상황이 좀 호전되면 하린이가 보고싶어 하는  
 고린과 꼭 보러가자. 사랑해♡

\* 김대수 사장님 (마포구 부부요리단)

**[사업자지원통장]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사업자지원통장' 신규 가입 시 은행의 매칭 기부 1억원과 추가 기부를 통해  
 총 3억원의 기부금을 조성, 전국 영세 소상공인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13,500여 명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코로나 19 극복 지원  
 기부 챌린지를 실시합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라며 눈물 보이시던 사장님,  
사장님과 가족분들의 행복을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0784호(2020.04.28), 광고물 유효기간 2020.12.31까지

# 김정은, 20일 만에 등장... 건강이상설 해프닝으로 끝나

### 민주당 "사망설·위중설 등 제기 태영호·지성호 사과해야" 靑 "가벼운 수술도 받지 않아"... 정부, 北 GP 충격에 항의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태영호·미래한국당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인을 향해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태영호·지성호 당선인은 그동안 김 위원장의 '위중설', '사망설' 등을 제기했지만, 전날 김 위원장이 노동절인 1일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영상이 보도되면서 망신을 당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3일 "근거 없는 주장을 한 데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사실에 입각해, 국익의 관점에서 의정활동을 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원내대변인은 이들이 김 위원장의 모습이 확인된 이후에도 '속단 말고 좀 더 지켜보자', '아무 이상이 없던 것일까' 등의 반응을 보인 데 대해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그것을 다시 주장에 꿰맞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제기됐던 건강이상설에 대해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가벼운 시술도 받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최근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 당선인과 탈북민인 지 당선인은 김 위원장의 '위중설'과 '사망설'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가 "특이 동향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들의 거듭된 주장에 혼란이 확산됐다.

이들이 퍼뜨린 '가짜뉴스'는 오래 가지 못했다. 전날 오전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순천인비료공장 준공 참석 소식을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 위원장이 특별한 불편 없이 예전처럼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흡연하는 모습도 담겼다. 두 당선인이 탈북민 출신인 만큼 북한 내부 사정

에 정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도 금이 간 것은 물론,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가볍게 다뤘다는 비판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가 돌아온 것, 그리고 건강한 것을 보게 돼서 기쁘다"는 환영 메시지를 전달했다.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다. 이는 북미 간 교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북미 간 대화를 다시 이어가려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김 위원장의 신변에 대한 미 정보당국 차원의 확인이 마무리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오전 북한군이 3일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뒤 총격이 이뤄진 점에서 일각에서는 의도적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군은 의도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군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처음으로 GP에서 총격이 벌어져 군사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북측의 설명을 요구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했다. 사진은 준공식 현장에서 카메라를 향해 손을 들어 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취약계층 우선 지급 기초·장애인연금 수급 280만 가구... 일반 가구 11일부터 신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4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현금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가구주와 가구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총 280만 가구가 해당되며 이는 전체 2171만 가구의 13%를 차지한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진 지급 시기는 다를 수 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 윤종민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돼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일반 가구는 같은 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후 약 2일 뒤인 13일부터 받

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의 경우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가구주만 가능하며, 가구주 명의 카드에 충전될 예정이다.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가구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취지를 고려해 6월 말까지 사용해 달라고 행안부는 권장했다.

재난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의제기부금으로 인정되며, 다음연도 연말정산에 15%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해 사용된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 이인영 "이등병 자세로 '코로나 경제대전' 임할 것"

### 원내대표 마지막 기자간담회

임기 종료를 앞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총선에서 이겼지만, 우리가 잃어온 속제가 한 집"이라며 "저부터 이등병 자세로 코로나 2차경제대전 전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경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방역이 1차 세계대전이라면 경제는 2차 세계대전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임기는 7일까지다. 민주당은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원내사령탑에 앉은 뒤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일본의 경제보복,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임기 동안 마주했던 현안을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하나같이

이 감당하기 벅찬 과제였지만 국민 여러분 덕에 모두 다 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원내대표가 됐을 때 혹은 친문(친문재인)이 아니라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 걱정도 했다. 그러나 끝날 때 가보니 할 일은 거의 다 했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유시민 선배 말씀이 참 고맙다. 비어 있던 제 가슴 한편이 채워지고 지난날 우리 내면에 쌓아뒀던 반목과 분열, 상처가 아무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됐다"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서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포인트 개헌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불필요한 개헌 논쟁을 통해 갈등이 생기거나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코로나로 시작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 SHAKE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쿼터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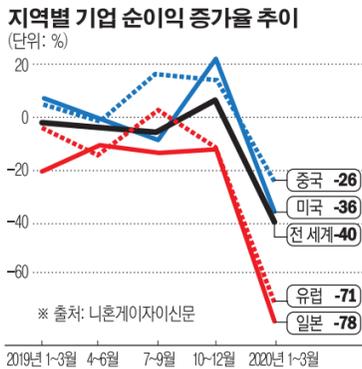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에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타트업 매개수수료 (주식) 0.15% + 1천원 ~ 0.05% + 1천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베드 통과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1599-8245



# 코로나 최대 피해국은 일본... 기업 순이익 78% 급감

전세계 1분기 순이익 평균 40% 줄어  
美 -36%·中 -26%...유럽 71% 추락  
日, 자동차·에너지·소재 기업 직격탄  
“2분기에도 40%↓”... 암울한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기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약 4400억 달러(약 539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 닛케이는 세계 약 8400개 기업의 실적 발표 수치를 시장 예상을 바탕으로 이런 결과를 산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세계 기업들의 순이익은 2015-16년 수준으로 퇴보했다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지역별로는 일본이 78% 감소로 가장 부진했으며 유럽 기업들의 순이익도 71%, 미국은 36% 각각 감소했다. 일본과 유럽은 자동차나 소재, 에너지 등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 큰 비중을 차지해 부진이 두드러졌다고 닛케이는 풀이했다. 미국은 IT나 의약·헬스케어 업종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

2분기도 전망은 암울하다. 시장은 1분기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기업 순이익이 전년보다 약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은 50-60%로 다른 지역보다 부진한 모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은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경제활동이 일찍 재개돼 1분기 순이익이 26% 감소하고 나서 2분기에는 12% 감소로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닛케이는 내다봤다.

세계적으로는 3분기부터 기업 이익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수습에 시간이 걸리면 올해 하반기에도 기업 실적 하강세를 면하기는 어렵다.

업종별로는 전 세계적인 여행 중단으로

항공업계의 타격이 가장 컸다. 글로벌 항공업체 73개사는 1분기 총 58억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다. 미국 메이저 항공사인 델타항공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2기에 항공업계 적자는 훨씬 커질 가능성이 크다.

생산이 일시 중지된 세계 자동차업체 158개사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보다 85% 급감했다. 자동차업종은 2분기에는 적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포드자동차는 1분기 6억 달러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2분기는 적자폭이 5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다. 독일 폭스바겐의 프랑크 비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외출 제한으로 소매와 서비스 업종 사업 환경도 급변했다. 독일 아디다스는 세계 매출의 70%가 휴업 중이다. 카스퍼 로스테드 아디다스 최고경영자(CEO)는 “3월 중순에 절벽에서 떨어진 것처럼 경영 환경이 확 바뀌었다”고 한탄했다.

미국은 그나마 IT와 헬스케어 업종이 선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재택근무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화상회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올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22% 늘어난 108억 달러로, 1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2년에 걸쳐 진행될 디지털 변혁이 불과 2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존슨앤드존슨(J&J)은 처방약이나 일상용품 비축 수요가 커지면서 순이익이 55% 급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의료진을 위해 박수를... 프랑스 파리 근교 생망데의 주택가에서 2일(현지시간) 한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환자 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주민들은 발코니에 대형 마스크와 프랑스 국기를 내걸고 함께 응원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근교 생망데의 주택가에서 2일(현지시간) 한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환자 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의 노고를 위로하고자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주민들은 발코니에 대형 마스크와 프랑스 국기를 내걸고 함께 응원하고 있다. 생망데/신화연합뉴스

## 61조 날린 버핏... “그래도 아메리칸 매직 확신”

美 경제에 변함없는 낙관론... 4대 항공사 주식은 전부 매각

‘오마하의 현인’이자 ‘투자의 귀재’로 통하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세웨이가 회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시장 충격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버핏 회장은 미국 경제에 대한 변함 없는 신뢰를 나타냈다.

2일(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투자회사 버크셔해세웨이는 올해 1분기 497억 달러(약 60조 832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16억 6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던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실적이 극과 극을 달랐다.

특히 버크셔의 순손실은 545억 2000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 평가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가운데 주식투자가 평가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험 부문의 실적 호조가 영업이익에 기여하면서, 투자 부문을 뺀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58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버크셔는 “3월 하반기 확산된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4월까지 지속되면서 대부분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핵심 사업 매출이 4월에도 상당히 둔화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버핏은 이날 네브래스카주 오



2일(현지시간) 회상 연례 주주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워런 버핏 회장. 오마하/로이터연합뉴스

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버핏 회장과 함께 그레고 아벨 비보험 부문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주 총회 현장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반 주주들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신 온라인 중계됐다.

버핏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잠재적 충격이 매우 광범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미국을 멈출 수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기적, ‘아메리칸 매직’은 항상 승리해왔으며 또다시 그러할 것”이라며 “나는 2차 세계대전, 쿠바 미사일 위기,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이를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1720년, 1820년, 1920년을 고를 것인가”라며 “여러분은 오늘의 미국을 택할 것이다. 미국이 건국된 이래 사람들은 여기 오기를 희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미국에 배팅할 수 있으나 어떻게 배팅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버핏 회장조차도 항공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항공산업에 관한 한 세계가 바뀌었다”며, 항공주에 투자했던 것을 ‘실수’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보유하고 있던 아메리칸에어라인, 델타,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항공 등 미국 4대 항공업체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최근 항공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인의 여행 취소, 기업체의 출장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구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게 되면 한시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제한된다. 변효선 기자 hsbun@

## “뒷북 정부 대신 우리가 뛰자” ‘코로나 퇴치’ 나선 억만장자

손정의 “전 직원 항체검사 제공”  
빌 게이츠 “9개월 내 백신 개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빌 게이츠 MS 창업자

세계적인 부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코로나19에 여러 나라 정부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억만장자들이 직접 나서서 의료물품을 조달하고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의 손정의 회장은 그룹사 전 직원과 가족에게 코로나19 항체검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소프트뱅크 그룹 사원과 가족 전원에게 코로나19 항체검사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며 “200만 개(검사키트) 발주를 완료했다. 모든 의료 관계자와 양로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희망하는 경우 소프트뱅크가 아무 이익을 내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소프트뱅크는 계열사까지 포함해 전체 직원 수가 지난해 3월 말 기준 약 7만 7000명에 달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한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설립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지난달 26일 CNN방송에 출연해 “1년 안에 백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같은 달 30일 “이르면 9개월 안에 백신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예상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준 것이다.

빌 게이츠의 자선재단은 지금까지 2억 5000만 달러를 백신 개발 용도로 지출했으며 백신 후보물질 7종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게이츠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한 종류의 백신 공장을 짓는 것”이라며 “각 백신 유형에는 다른 종류의 공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無주주 행사’로 바뀐 버크셔 주총에 버핏 고향 ‘오마하’ 260억 경제손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해세웨이가 2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연례 주주총회를 열었지만,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였다. 버크셔의 주총은 ‘자본주의 우드스탁’이라고 불릴 만큼 축제 분위기였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처음으로 주주들의 현장 참석 없이 화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버핏의 고향 오마하 지역 경제도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네브래스카주의 최대 도시인 오마하는 매년 버크셔 연례 주총에 맞춰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외지인들로 북적였다. 현지 호텔, 레스토랑 등은 버핏의 투자 노하우를 듣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로 가득 찼으며, 연회장에서는 버크셔 산하 기업들이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 차원에서 일반 주주들이 주총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대신 온라인 중계됐다. 버핏 회장의 발언 또한 동영상을 통해 라이브로 전달됐다. ‘버크셔 주총 특수’가 사라진 오마하 경제는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현지 관광국은 주총 중지만으로도 경제 손실이 약 2130만 달러(약 260억 712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오마하 시내 호텔 및 단기 숙박업

소에는 예약 취소 물결이 밀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 회사 STR에 따르면 버크셔 주총이 열렸던 지난해 현지 호텔이 올린 수입은 주말에만 무려 670만 달러에 달했다.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집을 임대하고 있는 켈리 라이스는 “통상 1박에 45~55달러 하던 숙박료를 지난해 주총 때는 200달러까지 인상했다”고 말했다. 일부 호스트 중에는 하루에 600~1000달러를 버는 주민도 있었다.

오마하에서 대형 이벤트가 중단된 연거푸 된 것은 버크셔 주총만이 아니다. 앞서 오마하는 6월 열릴 예정이던 대학 야구 미국 선수권 대회 ‘칼리지 월드 시리즈’가 내년으로 연기되는 상황을 겪은 바 있다. 관광국은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사 중단에 따른 경제 손실을 약 1억 97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 트럼프 ‘中 때리기’ 보수 결집 vs “대응 실패” 집중 부각 바이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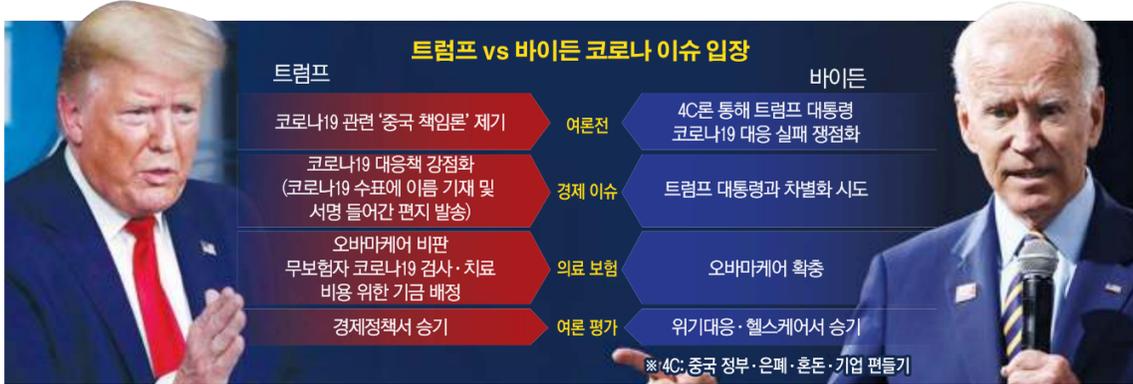
## 美 대선 ‘코로나 여론전’

1인당 1200달러 지원금 수표에 트럼프 이름 새기고 편지도 발송

바이든 ‘오바마 케어’ 확대 주장 보건 사각지대 유권자 끌어안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번 대선전의 최대 화두가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대선 정국을 집어삼킨 상황에서 각 당의 후보들은 코로나19 여론 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바이든 “4C론 전면에” vs 트럼프 “코로나19는 중국 탓” = 미 인터넷매체 약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이른바 ‘4C론’을 전면에 내세워 현 정권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쟁점화하겠다는 전략이다. 4C란 △중국 정부(Chinese Government) △은폐(Cover-up) △혼돈(Chaos) △기업 편들기(Corporate



Favoritism)를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중국 정부의 주장을 믿고 위험에 대해 눈을 감아버린 점,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축소·묵살해 대응을 지연시킨 점, 대응 과정에서 연속적인 혼선이 있었다는 점, 손실을 우려한 대기업들의 로비에 넘어가 국방 물자생산법(DPA)을 즉각 발동했다는 점 등을 강조해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반면 현직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꺼내 들고 나섰다. 트럼프 대

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기 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 마련에 나섰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까지 나온 상태다. 코로나19 초기 심각성 축소 논란 등으로 자신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자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대선 이슈 = 침체

된 경제와 의료보험 문제 등 코로나19 관련 새롭게 부각하는 여러 이슈 또한 이번 대선 정국의 화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금까지 “혜택이 중산층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격차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논쟁은 좀처럼 고조되지 않았다. 사상 최장기 경기 확장,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실업률,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주식시장 등에 만족하는 민주당 지지자도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경제 이슈는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가 됐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당초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50년 한국전 지원을 위해 제정된 국방물자법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다만 3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면서 바이든 구상을 자신이 실현해 이 시도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의 강점을 살려 코

로나19 대응책을 이번 대선전의 간판으로 삼는 모습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수표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새겨넣은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 발행 수표에는 재무부 서명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메모란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기재됐다. CNN방송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편지 또한 발송됐다.

의료보험 이슈 또한 이번 대선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고용 기업이 제공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일반적이인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대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달 “오바마케어에 근거하는 보험 가입 기간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된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을 늘리고 무보험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확충하고 민간보험과 공존시켜 무보험자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하지 못한 가입자가 늘어나 보험료 부담이 커졌으며 오바마케어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키니피악대학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위기대응이나 헬스케어에서는 각각 9%포인트, 13%포인트 차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하지만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5%포인트 차로 응답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변호선 기자 hsbun@

###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 美 대선 ‘우편투표’ 찬반 논란

### 공화 “보안·부정 선거 위험... 미친 짓” 민주 “코로나 확산... 간접투표가 안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일정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민주당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취소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당초 4월 28일 뉴욕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대선 경선은 6월 23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경선 자체를 취소하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측 위원들이 실질적 의미가 없는 예비선거를 열기엔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대선이 여섯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제2차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CNN 방송에 따르면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올해 미국 내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나는 그것이 돌아올 것이라고 거의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우편 투표 확대’다. 우편 투표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3월 통과된 2조 2000억 달러(2692조8000억 원) 규모의 3단계 경기부양책에 우편 투표 확대를 위해 40억 달러를 배정하려 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투표소 투표를 고집한 위스콘신주의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 “전면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소풍물에서 방독면을 쓴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제인스필/AP연합뉴스

적인 우편투표 방식으로 진행했어야 한다”며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가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편 투표와 관련해 “미친 짓”이라며 “만약 여기 동의한다면 공화당이 이 국가에서 선출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는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은 주(州) 전체에 걸친 우편 투표 문제에 관해 매우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유권자 사기와 관련한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무슨 이유가 됐든 공화당에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주된 반대 이유는 우편 투표를 대폭 확대할 경우 허위 투표 및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과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늘어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변호선 기자 hsbun@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 소상공인을 위한 응원에서 지원까지 하나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제의 최전선에서 코로나와 싸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은 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튼튼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 보험사·GA ‘유전자검사 변칙영업’ 옐로카드

## 금감원, 영업 유의사항 통보

금융감독원이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변칙 영업에 대해 보험사와 독립 보험판매 대리점(GA)에 경고장을 날렸다. 유전자검사 비용도 금품 제공에 해당돼 특별이익 제공 금지 법령에 저촉되고,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보험사와 GA에 ‘유전자검사를 이용한 보험영업에 대한 유의사항 통보’ 공문을 송부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와 GA업체는 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 도구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질병 예측이 가능한 유전자검사를 시켜준 뒤, 필요한 보장을 추천해주는 식이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보험 모집 과정에서

## 특별이익 제공 금지 법령 저촉

### 복지부도 “불법행위” 유권해석

### 특정 질병 검사결과 토대 가입 계약 역선택·재무 건전성 우려

유전자검사를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보험 영업에 활용해 생명유리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한 대형 GA가 의뢰한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보험마케팅’ 사업 모델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검사 기법을 보험 영업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보험회사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보험영업 등에 활용한 것, 신고하지 않은 불법 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DTC(소비자직접의료)로 허용되지 않는 질병 항목에 대한 검사 시행 등 생명유리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저촉 소지가 있는 사항을 보도참고 자료로 안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어 “보험 관계 법령은 보험회사 등이 3만 원 이상의 금품 등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유전자검사 비용도 금품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유전자검사 결과와 같은 건강 정보를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요구하거나, 그 정보를 수집·제공·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생명유리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자검사 결

과를 토대로 보험 가입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의 위법성을 떠나 보험계약의 역선택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했다. 기초통계에 비추어 보다 많은 보험금 지급으로 귀결되고, 결국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들이 유전자검사에 흥미를 보여 보험사나 GA에서는 이를 영업에 적극 활용해왔다”며 “복지부에 이어 금감원에서도 재차 경고를 했으니 당분간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생명유리법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에 따르면, 유전자검사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지연 기자 sjy@



## 우리금융 다문화장학재단 취약계층 아동 식사 지원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연기돼 식사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 1000명에게 식사 쿠폰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12년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200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해당 재단은 다문화가족 및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자녀 등 전국의 코로나19 피해 가정 자녀에게 모바일 쿠폰을 지원했다.

지원된 모바일 쿠폰은 취약계층 아동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달앱으로 음식 주문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게 식사하는 데 조금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감염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 키트를 지원했다. 2월에는 대구·경북 지역 취약계층 노인시설과 아동생활시설에 5억 원 상당의 식료품 및 임직원 성금을 전달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현황		
은행	건수(건)	금액(억 원)
우리은행	150	411
신한은행	34	182
하나은행	15	10
경남은행	8	8
부산은행	4	4
IBK기업은행	3	7
KDB산업은행	2	확인중
합계	216	622

증권	건수(건)	금액(억 원)
대신증권	75	176
신한금융투자	18	55
KB증권	7	13
신영증권	4	12
NH투자증권	2	6
미래에셋대우	2	8
삼성증권	1	확인중
유안타증권	1	5
합계	110	274

※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 라임 판매사 현장조사 완료... 분쟁조정 속도

## 금감원, 불안전판매 등 법률 검토 분조위 첫 회의 내달 열릴 듯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분쟁조정 과정에 착수한다.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이번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르면 6월 분쟁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5월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6월에 라임자산운용 제재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배드뱅크 설립과 더불어 분쟁 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이달 초부터 시작한 라임 펀드 판

사 대상 현장조사를 지난달 29일 완료했다. 현장에 나갔던 직원들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했으며, 분쟁조정국은 4일부터 현장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시작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먼저 1차로 법률 검토를 받은 뒤, 현장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2차 법률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내부 위원들과 외부 법무법인에서 관련 사항을 동시에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분쟁조정국과 자산운용검사국 등이 참여한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무역금융펀드의 불안전판매 및 사기 혐의를 조사했다. 먼저 무역금융펀드 운용, 설계를 주도한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1차 조사 대상이 됐다. 그 다음 판매사인 은행을 대상으로 2차 조사, 증권사를 대상으로 3차 조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

서 신한금융투는 한 달 내 금감원 조사를 두 번이나 받았다.

현장조사단은 해당 조사에서 판매사가 불안전판매와 사기 행위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조사단이 불안전판매, 사기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자들의 배상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감원도 현장조사 결과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몇 차례의 법률 검토도 거친다는 입장이다.

현재 라임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투자 대상 및 방법, 수익구조 및 수익률, 운용성과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안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이 입 모 전 신한금융투자 부사장을 구속 기소할 때 언급한 사기혐의,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내용도 법률 검토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

**DOUZONE**  
더존비즈온

www.wehago.com

## 대한민국 기업을 위하고! 원격근무 성공을 위하고! 재택근무 통합패키지 무상제공

- 본 서비스는 IC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기간: 2020. 06. 30까지)
-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의 소통과 협업에 특화된 12가지 서비스만 선별하여 업무 단절이나 보안 문제 없이 효율적인 원격근무 통합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WEHAGO 홈페이지(www.wehago.com)에서 신청하시고, 회원가입 후에는 바로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b>빈틈없는 재택근무를 위한 12가지 무상제공 서비스</b></p> <p>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세종텔레콤 협력)까지 무료로!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업무환경을 12가지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해줍니다.</p>	<p><b>내 PC 원격접속</b></p> <p>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의 서버 또는 PC에 접속하여 원격 화면을 보며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원격 PC의 자료를 관리합니다.</p>	<p><b>채팅&amp;메신저(WE톡)</b></p> <p>조직과 업무 단위로 그룹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와 파일을 공유하고, 쪽지, 화상회의, 투표, 일정 공유, 웹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 전용 메신저입니다.</p>	<p><b>화상회의</b></p> <p>국내와 해외 어떤 지역이라도 PC와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화상회의, 투표, 일정 공유, 웹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 전용 메신저입니다.</p>	<p><b>문자서비스</b></p> <p>거래처, 연락처와 연계되어 고객 및 거래처 그룹을 관리하고 대량 일괄발송 등 문자 기반의 다양한 마케팅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입니다.</p>			
<p><b>팩스</b></p> <p>팩스기가 없어도 인터넷 팩스를 통해 수신되는 팩스 내용을 읽고 팩스로 확인하고,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p>	<p><b>메일(1G)</b></p> <p>개인 메일은 물론 회사 메일까지 통합 관리하고, 간편하게 회사의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 전용 메일 서비스입니다.</p>	<p><b>전자결재</b></p> <p>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결재 양식을 제공하고, 모바일과 PC를 통해 비대면 요청이 가능하며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p>	<p><b>웹오피스</b></p> <p>한국, 역설, 파워포인트, 워드 등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웹 기반 오피스입니다. 이제 어디서든 쓰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b>WE드라이브(10G)</b></p> <p>회사 내 파일과 문서를 동료들과 쉽게 공유하고 검색하며, 웹 오피스를 통해 편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업용 파일저장소입니다.</p>	<p><b>일정관리</b></p> <p>일정 초대와 공유 캘린더를 통해 동료들과 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일정과 관련된 위치, 자료, 태그, 참석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협업합니다.</p>	<p><b>할일관리</b></p> <p>해야 할 업무, 진행 중인 업무, 종료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자는 지시한 업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p>	<p><b>기본정보관리</b></p> <p>조직도를 통한 직원검색, 수명주기 관리, 연락처의 통합관리 및 자동 업데이트/공유, 다양한 타인의 회사계좌번호 등 기본정보 관리 기능이 제공됩니다.</p>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가지 언어를 지원합니다.

# 삼성, 자율차 시대 준비...AI 기반 안전주행 솔루션 투자

이스라엘 넥사 600억 투자 참여 블랙박스가 포트홀 등 정보수집 차끼리 '실시간 공유' 위험 대비 작년 7월 7000마일 데이터 모아

삼성전자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가 이스라엘 인공지능(AI) 기반 차량 안전주행 솔루션 기업 넥사(Nexar)에 투자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넥스트는 1일(현지시간) 넥사가 모집한 5200만 달러(약 634억 원) 규모 투자에 참여했다. 넥사는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테크노

타트업이다. 블랙박스 영상분석,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차량 위치정보 등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데이터 집적·분석에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사용자가 넥사의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스마트폰의 넥사 앱에 연결하면, 도로의 포트홀이나 주변 지역의 위험물을 감지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번가 지역의 신호등이 멈춘다면 몇 분 전 교차로를 지나간 넥사 블랙박스를 장착한 다른 차량으로부터 정보가 수집되고 이는 다른 차량 등에 전송된다. 넥사 사용자는 차량 주행 중 벌어지는 상황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계속 보관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도 갖게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통지는 물론 사고 영상이 보험회사에 바로 전송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넥사는 AI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이미지와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보고서도 제공한다. 또 유사한 사고에 대한 수천 건의 판례를 토대로 최적의 사고책임 비율을 자동으로 산출해준다. 삼성넥스트는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넥사의 기하급수적인 사용자 성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사가 방대한 양의 비디오 장면을 수집, 활용 및

처리하는 데 능력을 입증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넥사는 지난 1년 동안 블랙박스를 갖고 다니는 사용자 네트워크를 10배로 늘려 미국 1000개 도시에서 매일 7000마일 이상의 주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스마트카·스마트 시티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 회사나 블랙박스 회사들이 카메라 성능을 개선시키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삼성넥스트 측은 "전 세계에 5G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넥사는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 개선에서 스마트 시티 구현에 이르

기까지 모든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리 및 상황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넥사 측은 "이번 투자금은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고 넥사의 글로벌 확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넥사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각국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지역의 네트워크 카메라 영상을 제공하는 '넥사 버추얼 카메라(Nexar Virtual Camera)'란 새로운 데이터 제품을 선보였다. 송영록 기자 syr@



갤럭시 Z플립 '미러 골드' 국내 상륙 삼성전자가 새로운 폼팩터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 미러 골드(Mirror Gold) 색상을 6일 국내에 출시한다. 이로써 갤럭시 Z 플립은 미러 퍼플(Mirror Purple), 미러 블랙(Mirror Black), 미러 골드까지 총 3가지의 색상을 갖추게 됐다. 삼성전자는 정식 출시에 앞서 4일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11번가에서 자급제 모델 사전 판매를 진행한다. 또 5월 한 달간 갤럭시 서비스+9만9000원 구매 쿠폰과 정품 액세서리 또는 웨어러블 제품 5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 대한항공, 1조 규모 유증 추진

1.5조 규모 추가 자구안 이달 이사회서 논의 예정 한진칼 경영권 분쟁 영향

대한항공이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등 추가 자구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3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여부와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규모는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조만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유상증자와 유휴 자산 매각 등을 포함해 최대 1조5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두 은행이 대한항공에 총 1조 41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도 지난달 29일 항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원과 함께 항공사의 자구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재계에서는 유상증자 방식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대한항공의 대주주인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지분을 보통주 기준 29.96%(우선주 포함 29.62%)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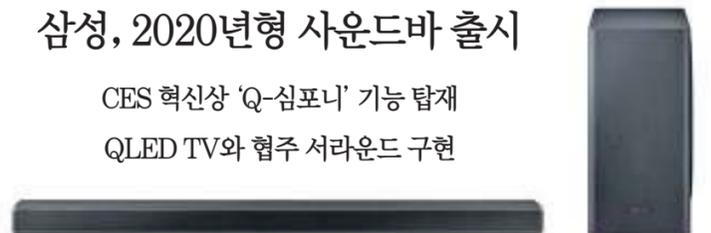
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면 지분율에 따라 3000억 원가량을 조달해야 한다. 이를 조달하기 위해 한진칼도 유상증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원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사이의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3자 연합의 한진칼 지분은 KCGI(19.36%), 조 전 부사장(6.49%), 반도건설(16.90%) 등 총 42.75%로 조 회장 측 우호 지분(41.3%)을 웃도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의 유휴자산 매각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를 비롯해 왕산레저개발 지분, 제주 파라다이스 호텔 등을 매각하기로 하고 매각 주관사로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기내식과 항공정비(MRO) 사업부문 매각 등을 포함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기내식 등 사업부문 매각설에 대해 "결정된 바 없으며 그냥 나오는 얘기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삼성, 2020년형 사운드바 출시

CES 혁신상 'Q-심포니' 기능 탑재 QLED TV와 협주 서라운드 구현

삼성전자는 4일 2020년형 사운드바 'Q시리즈'의 대표 모델인 'HW-Q800T' (사진)를 국내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소리에 방향성을 더해주는 삼성만의 특허 기술인 '어쿠스틱 빔(Acoustic Beam)'을 적용했다. '돌비에 트모스(Dolby Atmos)'와 'DTS:X(Digital Theater Systems:X)'를 지원해 3.1.2채널의 완벽한 3D 입체 사운드를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 전송 대역폭이 넓은 eARC(Enhanced Audio Return Channel)를 지원하기 때문에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 없이 원음 그대로 고품질 사운드를 구현한다. HW-Q800T는 미국에 위치한 삼성전자 오디오랩의 음향 전문 엔지니어들이 첨단

기법을 활용해 정교하게 튜닝한 제품이다. 2020년형 삼성 QLED TV와 연동할 경우 두 제품의 스피커를 모두 활용해 풍부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구현해 주는 'Q-심포니'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QLED TV와 Q 시리즈 사운드바가 마치 협주를 하는 듯한 'Q-심포니' 기능은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0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삼성 사운드바 HW-Q800T의 출고가는 90만 원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TV뿐만 아니라 사운드바 시장에서도 뛰어난 음질과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으며, 2019년 매출 기준 21.8%의 점유율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효성, 코로나 前 마스크 원료 증설 '신의 한수'

올초 가동한 베트남 PP공장 설비 전용 없이 500만 t 생산 효성화학, 하반기 실적 기대

올해 초 가동을 시작한 효성화학의 베트남 폴리프로필렌(PP) 공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뜻밖의 수혜를 보고 있다. 마스크에 사용되는 스펀본드 PP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장 가동을 시작하자마자 생산라인이 틀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 3일 효성화학에 따르면 베트남 바리아붕따우성에 위치한 베트남 PP 공장은 지난 달 초부터 스펀본드 PP 생산을 시작했다. 스펀본드 PP는 정전기력이 높은 합성수지 제품으로 주로 의료용 마스크, 가운,

가제귀 등 프리미엄 위생재의 재료로 사용된다. 앞서 효성화학은 지난해 총 13억 달러(약 1조5800억 원)를 투자해 베트남에 석유화학 단지를 건립하고 있다. 연산 30만톤(t) 규모의 베트남 PP 공장은 가동에 돌입했으며, 탈수소화 공정(DH) 시설,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등은 내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스펀본드 PP 생산은 효성화학이 코로나19 이전에 베트남 PP 공장의 증설 계획에 따라 생산을 시작한 것이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며 관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글로벌 전체 PP 설비 연산 9000만 t 중 500만 t 이상이 스펀본드 PP 생산에 전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효성 관계자는 "이달부터 스펀본드 PP

생산을 시작해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판매 중"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스펀본드 PP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 증설 계획에 따라 생산에 들어간 것인데 수요가 기대보다 많아진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설비를 전용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효성의 스펀본드 PP의 수요 증가는 범용 제품 수요도 함께 견인하며 효성화학의 실적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공장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효성화학은 올해 1분기 매출액 4247억 원, 영업이익 12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5.9%, 50.3% 감소한 수치다. 효성화학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 4286억 원, 영업이익 330억 원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 LG, 테헤란로에 26m 높이 LED 사이니지

LG전자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고화질의 초대형 LG LED 사이니지(사진)를 설치했다. 이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2016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광고물 산업의 중심지로,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물이 들어서며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로 불린다. LG전자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파르나스 호텔 앞에 옥외광고물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높이 26m의 직육면체 형태 구조물을 만든 후 앞면과 뒷면에 각각 가로 12m, 높이 21.8m 크기의 초대형 LED 사이니지를 설치했다.

LG전자는 초대형 LED 사이니지의 설계 및 설치뿐만 아니라 옥외광고물 디자인 설계, 기초공사, 구조물 제작 등 시공까지 전 과정을 전담해 진행했다. 구조물 앞·뒤 면적의 80% 이상을 채운 초대형 LG LED 사이니지는 1만니트(nit) 밝기를 지원해 낮에도 콘텐츠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사이니지는 픽셀과 픽셀 사이의 간격이 8.3mm로, 삼성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설치한 LED 사이니지 가운데 최고 기술력을 자랑한다. 픽셀 간격이 짝을수록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픽셀을 탑재할 수 있어 콘텐츠를 더 또렷하게 보여준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코로나에 손님 끊겼다”... 영세 소상공인 ‘잔인한 봄’

### 올 1분기 GBSI 지수 16.7... 지난 분기 대비 41포인트 급락 소상공인 96%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 자금 사정 나빠져 2분기 전망 36.8P 떨어진 25.7... “경기 부진 당분간 계속”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기가 역대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보증이용 업체 기업경기실사지수(GBSI)를 발표했다.

GBSI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용 업체가 느끼는 경기 전반의 매출·영업이익·자금사정에 대한 동향 및 전망 지수다.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의미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14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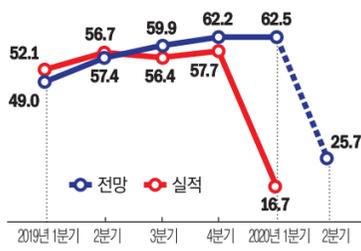
GBSI를 조사,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8일 동안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소기업·소상공인 2097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GBSI 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먼저 실질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1분기 보증이용 업체 경기 동향은 16.7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4분기 대비 41.0포인트 급락한 수치다. 1분기 매출 동향은 18.9로

올 1분기 경기 동향 및 2분기 경기 전망 지수 (단위: p)



전분기 대비 35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30.8포인트), 도소매업(-29.8포인트), 음식숙박업(-35.9포인트), 서비스업(-41.8포인트), 기타업(-35.4포인트)였다. 1분기 영업이익 동향은 17.0으로 전분기보다 35.9포인트 내렸다.

자금 사정도 나빠졌다. 1분기 자금 사정 동향은 17.5로 전분기 대비 37.8포인트 내렸다. 자금 사정 악화 이유로는 판매(매출) 감소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코로나 19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애로 사항을 살펴보면 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가 69.1%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로는 영업·생산 중단이 뒤를 이었다.

올 1분기 월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300만 원 미만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000만 원 미만(20.6%), 3000만 원 미만(16.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년 월평균 매출액 증감 여부를 살펴보면 ‘감소’가 9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화였음(2.8%), 증가(0.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매출액 감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98.2%)이었고, 그 뒤를 전남, 부산 등이 이었다. 매출액이 80% 이상 줄었다는 비율은 15.4%로 가장 높았으며, 20~30% 줄었다는 비율은 13.7%, 30~40% 줄었다는 비율은 13.4%로 조사됐다.

2분기 전망도 암울하다. 2분기 GBSI 경기 전망은 25.7로 올 1분기 경기전망보다 36.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2분기 매출 전망 역시 19.8로 1분기보다 40.3포인트 하락 전망했다. 영업전망은 전분기보다 40.7포인트 급락한 18.8, 자금 사정은 1분기보다 40.3포인트 내린 19.0으로 조사됐다.

이재민 기자 aaaa3469@

## SKT, 도이치텔레콤과 K-ICT 활용 협력

### 인프라 엔지니어 독일 파견 등 유럽 내 효율적인 5G 구축 지원

SK텔레콤이 유럽 1위 이동통신사 도이치텔레콤과 화상 콘퍼런스를 열고, 5G, MEC, 인공지능(AI) 등 K-ICT를 활용한 협력을 약속했다.

3일 SK텔레콤에 따르면 도이치텔레콤은 현재 전 세계 13개국에서 약 2억40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세계적인 이동통신사다. 4월 초 도이치텔레콤의 미국 자회사 ‘T모바일’이 미국 4위 이동사 스프린트를 인수 합병해 사업 규모가 더욱 커졌다.

SK텔레콤과 도이치텔레콤은 ICT 기반 혁신을 위해 2016년부터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SK텔레콤은 유럽의 부족한 인프라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무무선 기술 제공 등에 협조해왔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은 도이치텔레콤과 △효율적인 5G 구축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채용 노하우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비한 클라우드, MEC(모바일에 지킴퓨팅) 기술 진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비대면 플랫폼과 생활 안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팀 회트게스(TV화면 상단 왼쪽 첫번째) 도이치텔레콤 회장 등과 화상 콘퍼런스로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텔레콤

전·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AI 기반 스마트 에이전트 솔루션, AR·VR 서비스 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엔지니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인프라 엔지니어들을 독일로 파견해 5G 상용화, 운용 노하우 등 기술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활용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양사는 스타트업 공동 투자를 위해 지난해 설립한 DTCP 서울 사무소에서 국내 5

G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화상회의 플랫폼, 클라우드 고객센터 등 5G 및 클라우드 기반 비대면 솔루션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글로벌 ICT 기업들이 기술과 역량을 응집하면 위기 극복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코로나 촉발된 뉴노멀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K-ICT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람 기자 hura@

## “재난지원금, 우체국서 신청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계획에 따라 우체국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체국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은 5월11일부터 31일까지 우체국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오프라인은 공휴일을 제외한 5월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신청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요일제(5부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 서 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다.

우체국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

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취약계층이 아닌 나머지 1900만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세대주의 우체국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배정·지급된다.

지원금은 13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가구원 수별로 차등 적용되고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

지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정부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온라인 신청 11~31일**  
**오프라인은 18~29일**  
**월~금요일 5부제 운영**

### 현대렌탈케어, 안마의자 렌탈 성우메디텍 ‘리프레’ 3종 투입

현대렌탈케어가 안마의자 렌탈 시장에 진출한다.

현대렌탈케어는 안마의자 전문 업체 ‘성우메디텍’이 만든 ‘리프레(refre·사진)’ 안마의자 시리즈를 렌탈 상품으로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프리미엄형인 ‘리프레 힐리아’, 고급형인 ‘리프레 큐브’, 일반형인 ‘리프레 카리프’ 등 총 3종이다. 세 제품 모두 ‘맞춤형 마사지’를 제공한다. 목·등·허리까지 곡선의 척추 라인을 따라 설계된 S자형 프레임과 엉덩이부터 골반 라인을 따라 설계된 L자형 프레임이 인체에 밀착돼 부위별로 골고루 마사지를 해준다.

‘리프레(refre)’

안마의자 렌탈 상품의 의무 사용기간은 48개월이다. 이주민 기자 aaaa3469@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울산·전남·충북 추가

### “2022년까지 전국 17곳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유망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관학교)를 올해 울산, 전남, 충북 3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사관학교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관학교는 예비 소상공인을 발굴해 체험점포 운영, 이후 실전 창업에 이르기까지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올해는 정부와 지역 간 협력으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협업과 활용 계획, 지자체의 지원 의지 등을 비중있게 고려해 우선 설치 지역을 선정했다.

울산시는 지역에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울산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와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해 예비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창업

자금 등을 대폭 보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순천시)는 지역의 유휴 공간을 사관학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공하고, 지역 내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력해 창업 심화 교육, 멘토링, 자금, 점포 입점 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충북도(청주시)는 지역 내 대학 등에 밀집한 창업보육센터 등과 함께 청주 지역의 풍부한 청년 자원을 예비 소상공인으로 발굴해 충북도·청주시의 소상공인육성 자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앞으로 사관학교를 2022년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창업 자원과 역량들을 결집하고 디지털·온라인에 기반을 둔 신산업 분야의 창업 지원을 강화해 지역의 열악한 소상공인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aaaa3469@



LG유플러스 모델들이 ‘약정없는 LTE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 LG U+, 통신사 첫 무약정 LTE 온라인 요금제

### 기존 요금제보다 13~23.5% 저렴 ‘U+Shop’서 내달 30일까지 판매

LG유플러스가 통신사 최초로 무약정 LTE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한다. 온라인 전용요금제는 기존 요금제보다 약 13~23.5%까지 저렴하다.

LG유플러스는 실속과 고객을 위해 약정이나 결합 등 복잡한 조건이 없는 무약정 LTE 요금제 ‘LTE 다이렉트’를 공식 온라인 쇼핑몰 ‘U+Shop’에서 6월 30일까지 단독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LTE 다이렉트’는 매일 5GB씩 월 최대

155GB(월 31일 기준)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하루에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 5GB 소진 이후에는 5Mbps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전용 무약정 요금제다.

해당 요금제는 월 10GB의 테더링 데이터를 별도로 이용할 수 있고, △유선 음성통화(부가통화 300분 포함) △메시지 등도 기본으로 제공된다.

데이터와 음성통화, 메시지 등 기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존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69 요금제’와 동일하나, 월 이용료는 기존 대비 약 20%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김우람 기자 hura@

# 온라인 소통 활짝... 유통가 '언택트' 넘어 '온택트'로

<비대면>

<비대면+온라인>

CJ제일제당 '랜선 쿠킹클래스' 집에서 요리교실 체험 위스키 브랜드 글렌피딕, 인스타 통해 '온라인 시음회' 디지털 패션쇼 열고 화장품 품평회... 소비자 교류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언택트(비대면)' 마케팅이 '온택트' 마케팅으로 진화하고 있다. 언택트란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에 '온라인'을 결합한 개념이다. 언택트 마케팅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목적을 뒀다면 온택트 마케팅은 물리적 거리두기는 유지한 채 외부와의 소통은 살린 점이 특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지만, 사회적으로 여전히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최근 소비자가 집에서 요리교실을 체험할 수 있는 'CJ더키친 랜선 쿠킹클래스'를 열었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22일 '우리 가족을 위한 홈레스토랑'을 주제로 첫 '라이브

쿠킹클래스'를 선보였다. 이날 온라인 쿠킹클래스는 유명 푸드유튜버 '마지'가 직접 출연해 '고메 함박스테이크'를 활용한 '버섯 크림소스 함박 스테이크'와 '고메 꼬마돈카츠'로 만든 '꼬마 돈까스 샐러드' 요리를 선보였다.

시청자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요리를 배운다니 신기하다", "방송을 보면서 바로바로 따라 요리할 수 있어서 좋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CJ제일제당은 소비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4일 오후 3시 '온라인 쿠킹클래스'를 다시 한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쿠킹클래스 주제는 '츄피 크닉 캐릭터 도시락'으로 CJ더키친 소속 이강원 셰프가 CJ제일제당 제품을 활용해 직접 만든 메뉴 2종을 선보인다. 메뉴는 '행복한콩 폭신폭신티 두부볼'을 활용한 '땡땡이 두부볼 샐러드'와 'The더건강한 채



CJ제일제당이 소비자가 집에서 요리교실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쿠킹클래스를 선보였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쿠킹클래스에서 푸드유튜버 '마지'가 출연, 고메 함박스테이크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이고 있는 모습.

소&고기가득 비엔나 Style'로 만든 '비엔나 팬곤 감밥'이다.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 글렌피딕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한 '온라인 시음회'를 실시했다. 회사 측은 "전 세계의 브랜드 앰배서더들이 글렌피딕 브랜드 및 제품을 소개하고,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칵테일 레시피까지 제공해 소비자

들이 각자 취향에 맞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배대원 글렌피딕 브랜드 앰배서더는 온라인 시음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국내 출시된 글렌피딕 익스페리멘탈 시리즈 파이어 앤 캔디(Fire&Cand)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25일 백화점 업계

최초로 관중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2020 디지털 라이브 패션쇼'를 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패션쇼가 대거 취소·연기된 패션 브랜드들이 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디지털 패션쇼로 반전을 시도한 것이다. 패션쇼에는 만지·힐리너버세븐·고코리·까이에·블리다·뎀·세쎬 등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25개가 참여했다.

'2020 디지털 라이브 패션쇼'는 현대백화점 공식 유튜브 채널인 '현대백화점TV'를 통해 중계됐고, 중국 온라인몰 '다오바오', 동남아 최대 온라인몰 '쇼피' 등 해외 온라인몰의 라이브 채널에서도 선보였다. 전체 채널에서 약 5000명이 '무관중 온라인 패션쇼'를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CJ올리브영도 신진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즐거움 동행' 품평회를 올해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품평회를 기획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즐거움 동행' 시작 이래 가장 많은 5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박미선 기자 only@

## 2차 팬데믹 대비... 미래 전략 짜는 'K-진단키트'

씨젠, 직원 작년보다 5배 뽑고 생산 계약직 220명 추가 채용 신제품 기획 등 경쟁력 강화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은 국내 진단키트 기업들이 중장기 전략에 돌입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을 진행 중인 30여 곳의 진단기업들은 2차 팬데믹을 염두한 '고용증대'와 코로나19로 늘어난 수출지역에 맞춤형 제품을 추가로 수출하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파격적인 고용증대 발표를 한 곳은 씨젠이다.

국내 첫번째 긴급사용승인 기업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씨젠은 전문인력 및 바이오 인력 구축을 위해 지난해 채용 인원 34명보다 5배나 증가한 180여 명으로 늘린다. 더불어 생산을 위한 단기 계약직 220명도 추가

채용한다. 임금은 최저시급이 아닌 정규 수준의 파격적인 지급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1000만개 수출고를 기록한 오상헬스케어, 해외 주문 폭증으로 주당 200만개 생산을 시작한 수젠텍 등도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물량 공급 급증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인력은 생산직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30명에서 최대 200명까지 단기고용을 늘려가고 있다"며 "정규직 역시 기존보다 많은 10~20% 고용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진단키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앞으로 전 세계 진단기업들의 제품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경쟁우위에 있는 국내 진단키트 기업들 역시 해외 기업들의 가세를 대비해 제품 업그레이드에 힘쓰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

고 있지만 앞으로 수많은 해외 진단기업들이 가세하며 제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해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신제품 기획 및 또 다른 수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다양한 전략적 수립하고 경쟁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생명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IT, 소프트웨어(SW), 산업공학 등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 채용 △긴급사용이 아닌 정식 FDA 승인을 통한 미국 시장 진출 △해외 대형 유통기업들과의 전략적 시너지 창출 등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 의료기기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세븐일레븐 가정의 달 선물세트. 사진제공 세븐일레븐

## 카네이션·장난감·러닝머신... '가정의 달 선물' 편의점에 다 있다

세븐일레븐, 팜플릿 택배 상품 운영 이마트24, 장난감 럭키박스 내놔

가정의 달 선물, 편의점에서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편의점업계가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완구 선물부터 부모님을 위한 카네이션 선물, 생활가전, 수입 명품까지 다양한 선물 판매에 나선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50여 종의 '가족 사랑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의 '가족사랑 선물세트'는 전국 점포에 비치된 팜플릿을 통해 상품 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고 택배 전용 상품으로 운영된다.

세븐일레븐은 어버이날 기념 선물로 카네이션 꽃다발 2종(1만7500원~2만8500원)과 '정관장 감사가 세트(5만7000원)' 등을 선보였다.

어린이날 맞춤 선물로는 '루미큐브클래식(2만8000원)', '브루마블패밀리(3만 원)', '오프로드몬스터트럭(4만4000원)', '예쁜 냅스팬글메이크업박스(3만2000원)' 같은 보드게임·완구 상품과 함께 아동서적 6종을 준비했다.

이색 선물로는 '제스퍼LED마스크(8만9000원)', '물걸레청소기(8만 원)', 'BLDC 선풍기(14만9000원)', '아이러너 러닝머신(109만 원)'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이마트24는 어린이날을 맞아 장난감 럭키박스 2종을 단독으로 판매한다. 럭키박스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유명 브랜드 완구 상품으로 구성했다.

'레고 기프트박스'는 겨울왕국, 스피트

챔피언, 시티, 닌자고, 어벤져스 등 레고 상품 중 2개가 랜덤으로 구성됐고, 정상가보다 30% 이상 할인된 가격인 2만9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 발매되지 않은 신상품 '이스터버니' 제품이 포함돼 레고를 좋아하는 아이들과 성인 레고 마니아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오공 럭키박스'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인 헬로카봇과 자이로가 상품 4개가 랜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상가 대비 73% 할인된 가격인 89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24 럭키박스는 가격보다 높은 금액대의 완구 상품으로 구성됐고, 어린이 선물 수요가 높은 상권에 있는 500여 개의 이마트24 점포에서 구매할 수 있다.

럭키박스 2종 외에도, 헤이진지 등 키즈 유튜버 사이에서 인기를 끈 '해지밀 와우라라'와 레고 시리즈 상품을 비롯해 1만 원 이하의 소형 장난감부터 2만 원~9만 원대의 인기 캐릭터 상품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편의점 GS25는 어린이날을 맞아 애니메이션 대작 '트론:월드투어'와 손잡고 컬래버레이션 상품도 선보였다.

GS25에서는 트론:월드투어캐릭터를 매출이 우수한 상품 패키지에 넣은 스낵, 쿠키, 젤리, 빵, 냉장 간편식 등 전용 상품 총 33종을 선보인다.

카카오프렌즈 '라이언 크런치 케이크'도 선보인다. 언택트 소비 경향을 고려해 우선 요기요 제휴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GS25 점포에서만 배달 전용으로 운영된다.

박미선 기자 only@

## '이마트24' 안 '스무디킹' 인기... 두 달 새 40곳 문 열어

'1매장 2가맹' 새 수익모델로 김밥·떡볶이 등 결합 잇따라



이마트24 매장 내에 흡인숍(Shop in shop) 형태로 입점한 '스무디킹'의 인기가 거침 없다. 가맹 사업을 시작한 후 사흘에 한 개 꼴로 점포를 늘리고 있다. 흡인숍은 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다.

3일 신세계푸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스무디킹의 이마트24 흡인숍 점포 수는 20개에 불과했지만, 3월에는 30점이 증가했다. 4월 들어 10여 점이 늘어 전체 점포 수는 총 60여 점에 이른다.

이마트24는 지난해 9월부터 직영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스무디킹을 입점시켜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자 3월부터 가맹사업으로 확대했다. 가맹 사업 전환 후 두 달 새 늘어난 스무디킹 흡인숍 가맹점은 40여개다.

'이마트24X스무디킹'은 이마트24 매장에 음료 브랜드 스무디킹을 열어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1매장 2가맹' 수익 모델이다. 지난해 9월 론칭 당시에는 계열사 간에 힘을 합친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마트의 자회사인 이마트24와 신세계푸드의 스무디킹이 결합한 까닭이다.

특히 '1매장 2가맹' 모델을 통해 편의점주는 이마트24 가맹 계약과는 별개로 스무디킹 가맹 계약을 체결해 별도의 매장을 오픈해 투자비를 아낄 수 있다. 시스템 구축은 물론 최초 투자비와 입차료 등의 비

용을 낮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모델은 매장 일부를 임대해 다른 매장으로 운영하거나 타브랜드의 상품존을 구성한 기존의 흡인숍과는 차이가 있다.

이마트24의 흡인숍 시도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초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전남 목포의 주유소 2곳을 입차해 '편의점 주유소'를 선보인 이마트24는 이어 3월에는 청담점에 '리김밥'과 '공차'를 입점시켰다. 같은달 대구 동성로 점포 내에는 '국대떡볶이'를 오픈해 테스트에 나섰다. 아울러 북카페 콘셉트의 편의점을 비롯해 브런치 카페나 주제 맥주 전문점과 결합한 투가든 점포도 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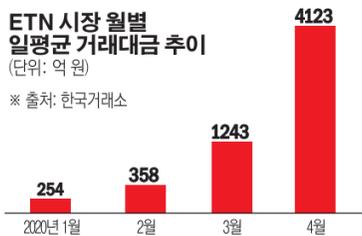
이마트24 관계자는 "스무디킹 흡인숍 매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오히려 기대보다 못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없었던 매출 창출을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상장지수증권〉

# 투기판 된 ETN시장... 4월 거래액 낙달 새 20배 '폭증'

코로나 사태에 유가 급락 영향  
하루 평균 거래대금 4123억  
개인 순매수 상위 9개 '원유 선물'  
주가 폭락에 평균 수익률 -37%



지난달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파생 금융상품으로 개발된 ETN이 물자 투자로 변질되면서 매매 수요가 급격히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ETN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약 412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11월 ETN 시장이 개설된

이래 가장 큰 금액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에 무려 20배 늘어난 규모다.

당초 올 2월까지만 해도 ETN 시장의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은 358억 원에 그쳤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3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1243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4월 들어선 4000억 원을 넘기며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급등락을 오가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연계 ETN을 중심으로 투기적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ETN 시장 거래대금이 하루 8950억 원으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며 일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달 6일 원유 선물 연계 ETN 14개 종목의 하루 거래대금은 8551억 원에 달했다. 이날 전체 거래대금의 96% 수준이다.

거래가 물리자 가격 왜곡 현상도 발생했다. 유가 급락으로 지표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투자자 매수세가 이어진 결과, 지표 가치 대비 ETN 시장가격이 터무니없이 부풀어진 것이다.

특히 WTI 선물 가격의 일간 등락률을 2

배로 추종하는 WTI 원유 선물 레버리지 ETN의 경우 괴리율이 지난달 한때 1000%에 육박하며 지표가치 10배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에 거래소는 "투자자가 ETN을 지표 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면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원유 선물 ETN 매매를 이어 가면서 투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투자자의 ETN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9개는 원유 선물 ETN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순매수 상위 1위인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의 경우

지난달 주가가 79.67% 폭락했고 2위인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역시 53.09%나 떨어졌다.

이외에도 '미래에셋 리버리지 원유선물 혼합 ETN(H)'(-55.67%)과 '신한 WTI 원유 선물 ETN(H)'(-52.14%) 등도 급락하면서 개인 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지난달 평균 수익률은 -36.78%에 그쳤다.

공원배 KB증권 연구원은 "ETF·ETN 등 상장지수상품(ETP)의 가격은 결국 순자산가치(NAV)라는 기준 가격으로 수렴하게 되므로 기준 가격 대비 고평가된 ETP의 경우 가격 하락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평가된 ETN을 비싸게 매수한 뒤 향후 괴리율이 좁혀지며 가격이 하락할 때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분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신품 '피라맥스' 코로나 치료제로 이달 임상 신청

신품제약이 피라맥스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임상 신청을 5월 진행할 전망이다. 피라맥스는 신품제약의 현재 출시돼 판매 중인 항말라리아 치료제이며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을 검토 중이다.

3일 제약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품제약은 지난달 4일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확인한 인비트로(시험관 내 세포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 시험 신청을 준비 중이다.

피라맥스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신청은 이르면 5월 초 이뤄질 전망이다. 신품제약은 식약처 신청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피라맥스의 경우 약물재창출(기존 의약품을 신규치료제로 개발)인 만큼 임상 진행 시 시험 기간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신품제약은 인비트로 시험에서 피라맥스의 주성분인 피로나리딘 인산염과 알테스네이트가 각각 코로나19에 대해 억제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두 성분을 병용하면 24시간 후 바이러스 역가 억제율은 99% 이상이고 48시간까지 지속력이 향상됐다. 동시에



**바이러스 역가 억제율 99%**  
**안전성 확보돼 신속 승인 예상**

세포 독성은 감소했다. 이는 대조군인 클로로퀸과 로피나비르(칼레트라 성분) 대비 동등 이상 효과다. 치료제로서 안전성도 검증됐다. 피라맥스는 식약처와 유럽 EMA 및 아프리카 21개국에서 허가를 취득해 4000차례 이상 허가임상과 95만 명 이상 말라리아 환자 치료 임상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됐다.

정부의 신속 승인 결정도 임상 진행 속도에 탄력을 불어넣었다. 임상 신청 후 승인 일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1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관련해, 임상시험 승인 기

간을 기존 30일에서 사용 경험이 있는 후보물질은 7일 이내로, 신물질의 경우 1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한 만큼 임상 신청 후 신속한 승인이 예상된다.

또한 식약처는 코로나19 환자가 참여하는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시험을 병행하거나 통합해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기관 임상시험은 1개 기관의 인정으로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동의 절차도 전화나 음성녹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한편 일각에선 의사 주도의 연구자 임상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확보한 병원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열어 피라맥스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신품제약도 이 같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활동 중이다. 병원 의사의 연구자 임상은 신품제약의 자료를 받은 후 임상계획이 자료 검토를 통해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고종민 기자 kjm@

오전 10시에 제공하는 투자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Money10에 게재했습니다

## 비케이탑스, 재무구조 악화에도...

# '에이스우진' 지분 매각 또 연기

비케이탑스(구 동양네트웍스·티탑스)의 400억 원 규모 에이스우진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에이스우진) 지분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비용만 1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유동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근 비케이탑스는 지오닉스와 체결한 에이스우진 매각 계약에서 잔금 405억 원 납입일을 기존 20일에서 10월 20일로 변경했다.

앞서 비케이탑스는 지난해 4월 에이스우진지분 32.61%를 450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9월 해당 지분을 다시 매각하기로 했다. 당시 계약은 계약금 45억 원을 당일에 받고, 나머지 405억 원은 지난해 말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을 불과 며칠 남기고 매각 일정을 4개월 연기한 데 이어, 이번엔 6개월을 더 미뤘다.

해당 매각이 연기되면서 재무구조는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비케이탑스는 지난해 금융비용으로만 128억 원을 썼다. 전체 매출액 대비 21% 수준이다.

최근 3년간 금융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7억 원에서 2018년 80억 원으로 빠른 속도로 늘었다. 반면 매출액은 같은 기간 862억 원에서 699억 원, 556억 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순차입금은 496억 원이다. 같은 기간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눈 자본조달비율도 2018년 23%에서 56%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차입금은 268억 원에

서 496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자본은 884억 원에서 395억 원으로 급감해 차입금 의존도가 늘어난 탓이다.

이 중 상당액은 에이스우진 출자금을 질권설정하고 빌린 고금리 차입금이다. 비케이탑스는 지난해 발렌시아로부터 306억 원을 이자율 9%로 빌렸다. 담보로 에이스우진 출자금 전액과 85억 원 규모 지분증권, 그리고 2억5000만 원의 현금을 질권 설정했다.

재무구조 악화와 함께 사업구조 역시 결손금만 99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악화한 상태다.

유상증자 자금 납입 전인 지난해 말 기준 비케이탑스의 현금성 자산은 74억 원이다. 이는 2018년(754억 원) 대비 10% 수준이다. 이와 별도로 현금예금 등 기타금융자산이 16억 원가량 있지만, 이는 전략질권 혹은 담보설정이 된 상태다. 매출 채권은 80억 원으로 받을 시기가 일정 기간 남은 자금으로, 단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금액은 현금성 자산뿐이다.

이는 단기 유동성 우려로 이어진다. 3개월 이내에 지급할 돈만 66억 원으로 보유 현금 대비 89%에 달한다. 사실상 기업이 영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8억 원이 전부인 셈이다. 또 발렌시아로부터 빌린 돈도 올해 안으로 갚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CB 92억 원도 있다.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은 제때 들어오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박기영 기자 pgy@

## 이엔에프테크 '美 법인' 성장 기폭제 기대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미국 법인 투자가 나서고 있다. 올해만 2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단행하면서 향후 미국법인이 해외 판로 거점이 될지 이목이 쏠린다.

이엔에프테크놀로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를 만드는 회사다. 최대주주는 한국알콜산업으로 지분율은 26.03%이다. 2000년 5월에 설립된 이후 2009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주요 거래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회사는 28일 종속사인 미국 현지법인(ENF USA Holdings, Inc.) 유상증자에 참여해 98억 원(800만 달러)을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1월, 회사는 116억 원(1000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한 바 있다.

올해 투자를 반영하면 미국 법인의 자본금은 전년 말 48억 원에서 262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말 미국 법인 매출액은 3875만 원, 순손실 5억4474만 원이다. 일부 매출을 보였지만 현재 생산시설은 공사 단계로 사실상 실적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지역별 수익 현황** (단위: 억 원)

	2018년		2019년	
	매출	영업이익	매출	영업이익
한국	3,636	313	3,981	491
중국	650	44	866	111
미국	-	-1	0.4	-6
합계	4,286	356	4,847	596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0억 투자, 공정용 소재 공급 추진 인텔 등 현지 반도체 업체 협력 강화**

회사는 2년 전부터 미국 진출에 나서고 있다. 2018년 6월, 미국 법인은 이엔에프테크놀로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종속사로 미국 내 반도체 전자재료 제조 및 판매를 위해 설립됐다. 삼성전자 오스틴 생산법인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에 공정용 케미칼 소재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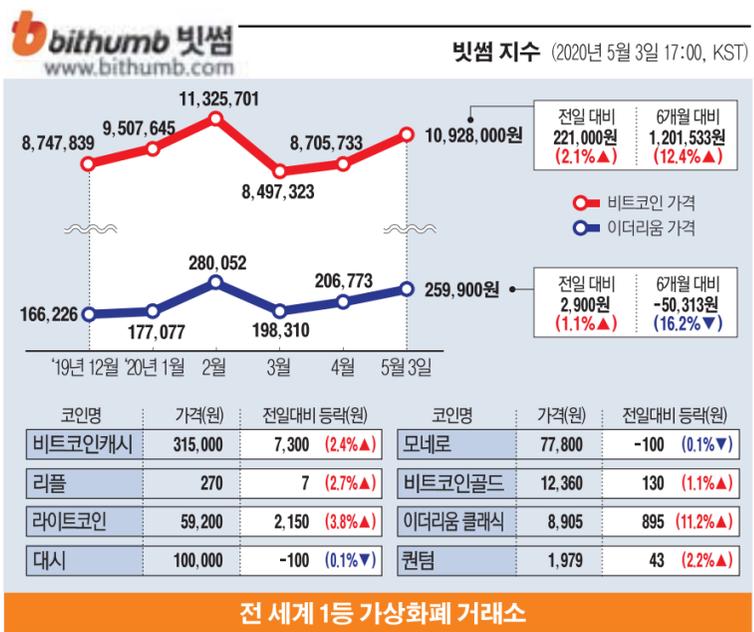
증권가는 미국 법인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유효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

정용 소재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마이크론, 글로벌 파운드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등 현지 반도체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 D램, 낸드의 메모리 반도체향 중심에서 시스템 반도체향으로 공정용 케미칼 공급 신규 확대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일찍이 진출한 홍콩 법인도 해외 매출에 보탬이 되고 있다. 회사는 2010년 6월 중국 진출을 위해 홍콩 법인(ENF China Holdings)을 설립했다. 매출액은 2018년 650억 원에서 866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 영업이익은 44억 원에서 111억 원으로 늘었다. 전체 이익 규모도 늘어난 가운데 홍콩법인의 이익 비중은 12%에서 18%로 늘어 실적 개선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초에 착공된 미국 생산시설 구축을 통해 현지 해외 고객사까지 확보한다면 점진적인 외형 성장과 시스템 반도체향 매출 비중 확대의 방향성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 올 종부세 인상 무산... '보유세 폭탄'은 현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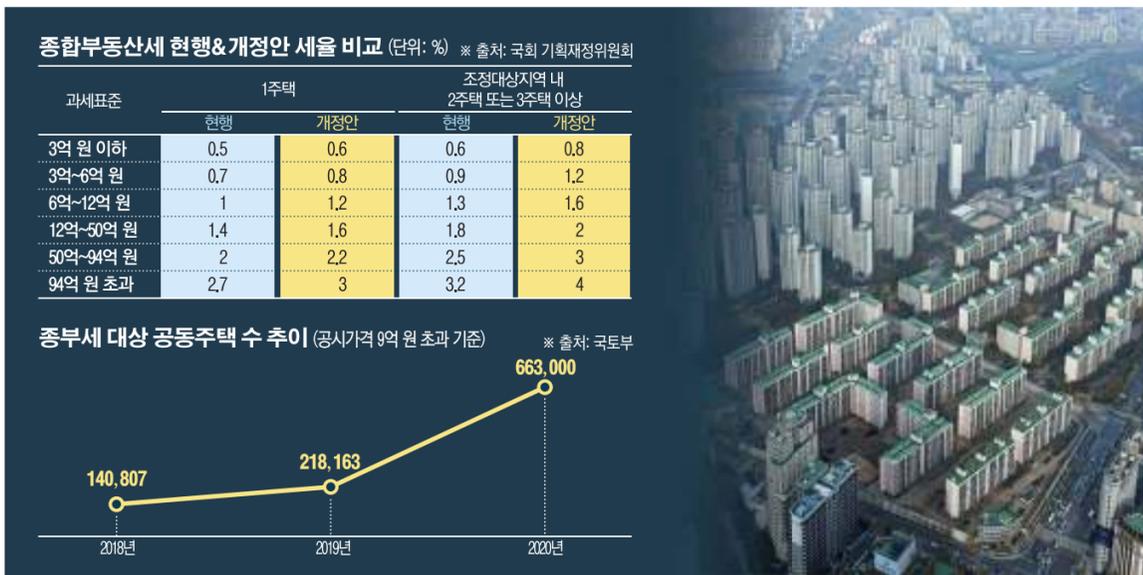
코로나 추경에 묻혀 법안 처리 못해 20대 국회 핵심법안 자동 폐기 운명 정부, 8월께 세율 인상 개정안 재추진

올 공시가 크게 올라 사실상 증세 고령자·다주택자 주택 처분 늘어

제20대 국회 폐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 오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도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8월께 세율 인상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세소위원회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여야 이견이 극명히 갈리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개편 등 지급 사안에 밀렸다.

종부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핵심이다. 지난 연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에서 정부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엔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엔 0.2~0.8%P 올리기로 했다. '주택 보유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명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16 대책 1주일 만에 정부 안에 맞춰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소위를 사실상 연내 종부세 세율 인상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겼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개정을 마치지 못하면 연내 세율 인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부칙 삽입 등을 통해 소급 입법하는 방안도 거론하지만, 기재부에서 '소급입법은 없다'며 손사래를 친다. 5월 내로 종부세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세율 인상을 미루겠다는 의미다.

6월 1일까지 개정을 마치기엔 정치 일정이 너무 빠듯하다. 조세소위를 넘더라도

기재위, 법제사법위원회 등 문턱이 남았는데 20대 국회는 5월 29일 임기를 마친다. 국회 대수가 바뀌면 전대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기재부는 21대 국회가 열린 후 7월 '2020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종부세 인상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범여권이 국회 의석 5분의 3 이상을 차지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 인상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범여권 의석(190석)으로 모든 국회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활용하

야당 반대도 무력화할 수 있다. 정가 안팎에선 21대 국회가 열리면 여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종부세 인상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분양가상한제 강화 등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예상된다.

종부세 세율 인상이 1년 늦어지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가 져야 하는 세금 부담을 소폭 줄어줄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여당 안대로 종부세 세율을 올리면 종부세 세수가 4217억~489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이낙연 국회의원 당선자(전 국무총리) 등 여권 유력인사들은 4·15 총선 과정에서 1주택자·장기 보유 실거주자 종부세 부담 감면 등을 약속했다. 다만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공약을 반영할 것이냐는 물음에 "아직은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12·16 대책을 근간으로 여권에 맞춰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선 세율 인상이 늦어진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세금 부담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정부가 올해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전용면적 84㎡형 기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보유세는 지난해 419만8000원에서 610만3000원으로,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보유세는 245만8000원에서 354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고령자나 종부세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 가운데는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합영진 부동산 114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세율 인상이 1년 늦춰졌지만 내년 인상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며 "고령자 등은 이번 기회에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지난달 20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금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황금연휴를 앞두고 일부 금매물이 소진되고 매수 문의가 늘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에도 상업용 부동산 '好好'

1분기 거래량 8.3만 건...17% ↑ 2018년 호황기 이어 두번째로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총 8만2960건을 기록했다. 월별로 △1월 2만8192건 △2월 2만7548건 △3월 2만7220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7만942건)보다 거래량은 약 17% 늘었다. 특히 올해 1분기 거래량은 2010년 이후 연도별 1분기 거래량 중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상업용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주택시장 규제가 비규제지역과 수익형 부동산시장의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수익형 부동산들의 투자 수익률과 임대지표도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황금연휴前 급락 → 초급매 뒤 다시 '깡충'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반등

은마·잠실5주공 등 호가 올라

급매물도 떨어졌던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황금연휴를 앞두고 급매물이 소진된 데다 집주인들이 호가를 다시 올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지난달 6일 19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올 들어 실거래가 19억 원대로 내려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호가는 더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는 지난달 말 급매물 가격이 17억2000만~17억5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총선 직후 17억5000만~18억 원이던 시세가 보름여 만에 5000만 원가량 더 내려간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직전 최고가인 21억5000만 원에 비해 최고 4억 원가량 떨어진 수준이다.

그런데 이번 황금연휴를 맞아 호가가 다시 오르는 모습이다. 은마아파트 1층의 경우 17억2000만 원 선에 나와 있고, 중간층은 17억9000만~18억3000만 원 이상으로 다시 5000만 원 이상 뛰었다.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

주공5단지도 비슷하다. 잠실 주공5단지는 총선 이후 약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말 급매 시세가 작년 5월 시세인 전용 18억~18억2000만 원 선으로 떨어졌었다. 지난해 12·16대책 직전 최고가인 21억3000만 원에 비하면 3억 원 이상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휴를 전후로 18억 원 초반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18억5000만~19억 원 이상으로 호가가 뛰었다. 최고 8000만 원 이상 호가가 오른 것이다.

보유세를 줄이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내에 팔려는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급매물이 팔리면서 매수 문의가 늘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가격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대치동 J중개업소 관계자는 "총선 직후 급매물이 나왔다가 연휴를 전후로 매물이 들어가는 분위기다. 급매물로 집값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매수 문의가 늘어나며 실수요들이 움직이자 집주인들은 호가를 다시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보유세 회피 절세 매물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추가로 매물이 나오긴 어려워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막바지 추가 급매물로 약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 금주의 분양캘린더

5월 첫 주엔 전국에서 6000여 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총 16개 단지, 6093가구(일반 분양 3061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고양시 덕은동 'DMC 리버파크 자이'·'DMC 리버포레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5/7 (목)	접수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솔리스타 ♣		
					목동솔리스타 ♣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신안원월드메르디앙 1순위		
					부산	동래구	온천동
		대구	달서구	진천동	월배리온프라이빗디엘 2순위		
					발표	서울	양천구
	목동솔리스타 ♣						
	경기	수원시	망포동	영통자이			
				대구		중구	도원동
	5/5 (화)	계약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솔리스타 ♣
							목동솔리스타 ♣
	5/8 (금)	접수	경기	고양시	덕은동	DMC리버파크자이 1순위 (당해지역)	
DMC리버포레자이 1순위 (당해지역)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의정부역신안원월드메르디앙 2순위		
					대구	중구	동인동1가
대전			동구	가양동	가양동고운하이플러스 1순위		
					발표	대전	유성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쌍용더플래티넘범어 (~5/12)			
5/7 (목)		접수	경기	고양시		덕은동	DMC리버파크자이 1순위 (기타지역)
							DMC리버포레자이 1순위 (기타지역)
대구		구리시	수택동	구리수택(행복주택) (~5/18)			
				김포시		통진읍	김포마송B5(행복주택) (~5/18)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롯데캐슬골드포레 1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 “납품가 부풀린 삼양사 조달청 입찰제한 적법”

### 2심 “4년간 조작된 가격 제출 국가에 40억 손해” 1심 뒤집어

삼양그룹 계열사인 삼양사가 토목용 보강재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 자료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조달청이 내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최근 삼양홀딩스와 삼양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양사 등이 납품 단가를 조작한 부정 행위가 인정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손해가 경미해 입찰 제한은 위법이라는 부분을 뒤집었다.

조달청은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구매 입찰을 공고한 뒤 삼양홀딩스를 적격자로 선정했다.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납품 계약 과정에서 삼양사는 삼양홀딩스로부터 인적분할 후 단독으로 2~4차 계약을 맡았다.

마지막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인 2015년 11월 조달청은 경찰로부터 토목용 보강재의 고가 구매 여부와 관련해 수사 협조를 요구받고 특별감사를 시행해 삼양사 등이 납품 가격을 부풀린 사실을 발견했다.

조달청은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는 세금계산서의 수량과 단가를 삭제하고 이를 부풀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가격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2016년 6월 17일~2018년 6월 18일)했다.

이에 삼양사 등은 조달청을 상대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삼양사 등이 부정행위를 했는지, 손해액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국가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삼양사 등은 “계약 체결 당시 대리점에 납품한 가격 자료를 설계용역비 및 제반 관리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수정해 제출한 것”이라며 “이는 납품 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세금계산서의 수량과 단가를 임의로 삭제하고 거짓이 없다는 약까지 한 것은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양홀딩스의 행위는 2011년 1월 1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가격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해당 계약에서 국가의 손해는 10억 원을 넘지 않는다”며 “삼양사가 담당한 2~4차 계약도 손해가 10억 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조달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봤다.

2심은 삼양홀딩스에 대한 원심 판결은 인정하면서도 삼양사에 대한 판단은 일부 뒤집었다. 삼양사로 인한 국가의 손해를 1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2심은 “삼양사는 2011~20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매년 유사하게 조작된 가격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행위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 국가에 지속해서 손해를 입혔다”며 “그 액수도 합계 4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커서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제재를 통해 유사한 행위를 예방할 공익적 필요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계몽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카네이션도 ‘드라이브 스루’

3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주차장에서 열린 ‘고양 드라이브 스루 플라워 마켓’에서 시민들이 차량에서 꽃을 구매하고 있다. 어버이날 등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플라워 마켓은 10일까지 주말과 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신정아 사건’ 변양균 연금 감액은 합헌

### 현재 “사면 받았더라도 범죄 부인되는 것 아냐”

공무원이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을 감액 지급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변 전 실장은 2007년 이른바 ‘신정아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퇴직했고, 2009년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2010년 8월 특별사면, 복권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죄가 확정된 2010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근거해 퇴직연금을 감액 지급했다. 변 전 실장은 특별사면, 복권 이후 퇴직연금 감액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근거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변 전 실장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급여 등을 계속 감액하는 것을 두고 현저히 불합리한 수단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이른 범죄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서울시 2조8329억 2차 추경 긴급편성

### 코로나 타격 현금지원 중심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조8329억 원 규모의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다.

서울시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4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업종 및 고용보조금 사각지대 지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에 활용된다.

2차 추경은 증액사업 2조8329억 원, 감액사업 1조1591억 원으로 1조6738억 원 규모다.

2차 추경의 세부안으로 우선 서울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총 2조6671억 원 집행에 위한 분담액 3230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소비 위축, 내한 관광객 감소, 공연 취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도시제조업·공연업·호텔업·택시업)과 고용보조금 사각지대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435억 원도 배정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코로나 보릿고개’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6256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매달 70만 원을 2개월 연속 현금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5756억 원)과 소상공인 채무보증 여력 확대 사업(500억 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관련 1억8000만원, 저소득층 생활지원 74억 원을 편성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똑똑, 나기도 될까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인가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정책이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주세요  
1588-1940 [www.childfund.or.kr](http://www.childfund.or.kr)

#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 '稅폭탄' 피하려면

## 생활 속 세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또 사업자가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알고 세금을 추징하게 될까. 이 밖에도 사업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매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 이미 고지받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다 납부해야만 할까.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알아봤다.(편집자 주)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 거래...거래행위 불인정= 서울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강만성(가명) 씨는 지난 2014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준 부분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 5년간의 세금을 일괄 추가 징수했다. 이에 강 씨는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이 강 씨에 부과한 세금은 정당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세관청이 강 씨에 부과한 세금은 정당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 또는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함으로써 세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은 우선, 행위 당시 당해 법인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또 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



### 과세관청, 임대료 받은 것으로 인정 미납세금 일괄 추가징수 세무 전산화로 매출 누락 쉽게 적발... 고의 땀 '조세범' 처벌

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해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와 차액의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한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관계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등이다.

◇매출액 신고누락, 국세청은 다 알고 있다= 수원에 사는 이호철(가명) 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도 하나 마련했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2채나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런데 최근 이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사실 이 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현금매출액은 일부만 신고하고, 대부분을 누락시킨 게 적지 않다.

애초 이 씨는 누락시킨 사실을 세무서에서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번 세무조사에서 모든 게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떻게 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내릴까.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지금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 내역은 전산처리 되어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 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보다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서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 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 및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고치지 않고 국세청은 수집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별로 모아 관리하고,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있다.

이후 국세청은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세무조사 결과,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는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더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 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방침"이라며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실적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추천= 서울 용산에서 전자제품 도매업을 하는 마봉구(가명) 씨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아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거래처가 부모로 파산하는 바람에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고지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만일, 마 씨처럼 전년도보다 사업실적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에도 반드시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만 하는 것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교할 때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계산한다.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는데, 신고할 때는 중간예납추계액의 산출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면 애초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내용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한다"며 "만일,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해 조사내용대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 사업실적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좋다. 괜히 무리하면서까지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확정신고하고 다시 환급받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http://www.hau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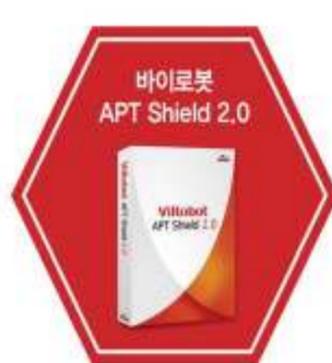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38 (예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 +100<sub>yd</sub>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 최적화 기술 적용

##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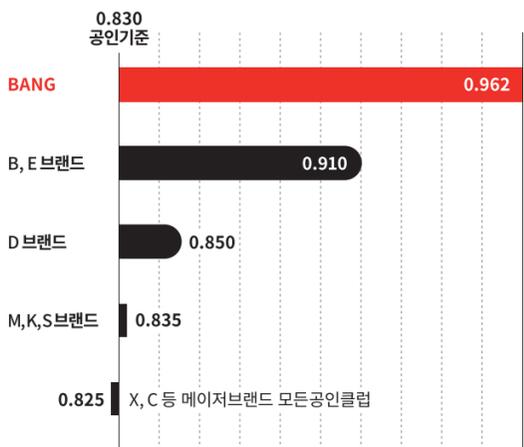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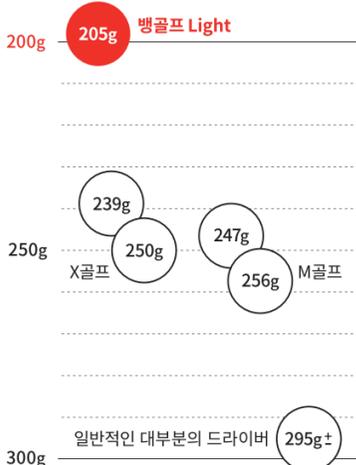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 고반발 기술 격차



### 경량화 기술 격차



###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무게(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 조기 흑자전환 성공... '굿 스타트' 끝은 조석 사장

〈현대일렉트릭〉

## 취임 4개월 만에 시장 전망 넘어서 '첫 성적표'

### 첫 외부 출신 수장으로 수익성 위주 수주 전략 효과 비용절감·체질개선...ICT 접목 미래먹거리 준비도

지난해 12월 현대일렉트릭의 수장으로 발탁된 조석(사진) 사장이 '조기 흑자 전환'이라는 첫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과 원가절감 노력이 흑자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3일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전력기·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은 1분기 영업이익 43억 원을 기록하며 2018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시장에서는 현대일렉트릭의 흑자 전환을 이르면 2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해 왔다.

현대일렉트릭은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이후 중동 건설시장 불황, 조선업 침체 등으로 실적 부진을 겪어왔다.

첫 외부 출신인 조 사장이 취임 이후 가

장 먼저 살펴본 부분 중 하나가 '수주 가격'이다. 저가 수주 물량 문제 해결을 위해 수익성 위주의 수주 전략을 펼쳐, 결과적으로 1분기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조 사장은 198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2011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지냈고, 2013~2016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역임했다.

조 사장은 취임 이후 약 4개월 동안 이 같은 수익성 개선 전략을 비롯해 △전사 체질 개선 및 변화 프로젝트(DNA) △미래 신성장 동력 등 3가지를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추진해왔다.

우선 실무 담당자 주도하에 구매, 설계, 제조, 영업 등 전사에 걸쳐 비용 절감 방안



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일하는 방식 및 사고 전환을 통해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 먹거리 준비에도 여념이 없다. 조 사장은 오랜 기간 쌓아온 제조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스마트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현대일렉트릭은 2017년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이후부터 자체 ICT 플랫폼 'INTEGRICT(인티그릭)'을 론칭하는 등 자산관리솔루션, 에너지솔루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조 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언택트(비대면)' 트렌드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전담 TFT(테스크포스팀)를 꾸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방식 변화는 물론 고객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화상 상담 인프라 고도화, 비대면 입회 검사 시스템 등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해외 바이어들과 직접 만나지 않아도 회사와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 모든 변화와 발전은 조 사장이 취임 이후 끊임없이 직원들과 소통해 온 결과"라면서 "그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공장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새 대표 하우버 스웨덴·덴마크 사장 임명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이사 사장이 5년 임기를 마쳐, 신임 대표이사로 본 하우스 메르세데스-벤츠 스웨덴 및 덴마크 사장을 8월 1일부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본 하우스 신임 사장은 1996년 다임러 그룹에 입사해 독일, 동남아시아 등에서 제품 전략, 네트워크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07년 중국의 메르세데스-벤츠 승용부문 세일즈 마케팅 업무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메르세데스-벤츠 중국 밴 부분의 대표를 지냈고, 2016년 메르세데스-벤츠 스웨덴 및 덴마크 사장으로 부임했다.

한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은 9월 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USA의 영업 및 제품을 총괄하게 된다. 유창욱 기자 woogi@

## 게시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에 권호열 교수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신임 원장에 권호열(61) 강원대 IT대학 컴퓨터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제13대 KISDI 원장으로 권 교수를 선임·임명했다고 밝혔다. 연구회에 따르면 권 신임 원장은 현재 강원대 IT대학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 전문위원회 위원, 한국정보처리학회 부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단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다. 취임식은 내달 7일이며, 원장 임기는 3년이다.



### 서울시병원회장에 고도일 병원장 추대

서울시병원회는 1일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김갑식 회장의 후임에 고도일 부회장



(고도일병원 원장, 신경외과 전문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고도일 신임 회장은 김갑식 회장의 잔여임기인 내년 3월 말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APEC 사무국 파견 신승인 △디지털안전정책과 장 신민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안통신과장 주경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정보시스템1과장 전종길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코트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박대규 ◇과장급 전보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김완기 ◇과장급 전보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조익노 △수출입과장 신용민 △산업재난담당관 이상욱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 김석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서비스투자지원팀장 김두열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투자지원팀장 전용욱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일자리위원회 파견 김종철 ◇과장급 전보 △울산지정장 김홍섭

◆여성가족부 ◇서기관 승진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양현순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박정식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장 박재규

◆유비케어 △상무 김인재

## “코로나 대응 놀라울만한 모범 세계가 한국 성공사례 따라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 테슬라 최대 리스크는 '머스크의 입'?

“주가 너무 높아” 한마디에 10% 폭락...과거에도 트윗 물의 빈번

안토니우 구테흐스(사진) 유엔(UN)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언급하며 “세계 많은 다른 나라들이 따를 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주목할 만한 본보기이자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한 싸움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을 향해 “놀라울 만한 모범”, “지극히 성공적인 사례”라며 거듭 찬사를 보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 한국 정부가 탄소배출량과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경제회복계획, 이른바 ‘그린딜(Green Deal)’을 마련한 데 대해서도 “한국은 이 두 가지(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를 어떻게 합할 수 있는지 주목할 만한 예를 보였다”고 했다.

그는 ‘그린딜’에 대해 “매우 야심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한 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고 탄산가스 배출량이 많은 공해산업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야말로 탄소에 가격을 물리고 오염원 배출 기업에 비용을 지불하게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유창현 기자 lamuziq@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사진) 최고경영자(CEO)의 경솔한 한마디에 주가가 무려 10%나 폭락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매체 CNBC방송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내 생각에는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이 올라오기 전만 해도 주당 760.23달러에 거래되던 테슬라 주가는 결국 701.32달러에 마감해 10.3% 폭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이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 CEO가 물의를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8년 8월 “테슬라

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는 트윗을 게재했는데, 이때 주가가 폭등해 거래가 일시 중지되기도 했다.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문제를 제기하자 주가는 또다시 크게 요동쳤고, SEC는 머스크 CEO를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머스크 CEO는 2000만 달러(약 244억 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WSJ은 머스크 CEO의 트윗이 농담인지 혹은 검증 받은 것인지 회사 측에 문의했지만 그저 “아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 CEO는 ‘테슬라 주가’ 발언 외에

도 최근 트위터에 “난 거의 모든 물리적 소유물을 매각하고 있다. 집도 가지지 않을 것”, “사람들에게 이제 자유를 돌려 달라” 등의 게시물을 잇달아 올려 논란을 촉발했다. 자유를 돌려 달라는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리진 자택 대피령을 해제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머스크 CEO는 자택 대피령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지난달 27일 열린 1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도 자택 대피령과 관련해 “헌법적 권한에 반해 강제로 사람들을 자택에 감금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 SK이노, 사회공헌도 언택트 ‘따뜻해 마스크 캠페인’

마스크 만들어 응원편지 함께 소아암 어린이들에 전달

SK이노베이션이 구성원과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기부하는 ‘따뜻해 마스크 캠페인’에 동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방식의 직접 자원봉사에 한계가 생기자, 언택트 방식의 사회공헌을 선택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 주관하는 ‘따뜻해 마스크 캠페인’에 구성원과 가족들이 참여해 직접 만든 마스크와 응원 편지(사진)를 전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을 통해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진 소아암 어린이에게 손바느질로 직접 만든 마스크를 선물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1차로 진행된 이 자원봉사에 구성원 및 가족들 60여 명이 참여해 총 100개의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바느질 문화에 낯선 세대이긴 하지만, 소아암 어린이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각자 2~3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손바느질로 마스크를



만들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소아암 어린이들이 병마와의 싸움에서 멋지게 이겨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ugene@

## 부음

### 16~18대 의원 지낸 김효석 석유협회장

김효석 대한석유협회장이 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김 회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제16,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7년 11월 대한석유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 14호실(02-2258-5940)이다. 발인은 4일 오전 10시 30분,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용인로템파크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문순애 씨 별세, 오승훈(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수석검사역)·상희·경화·양희(상쾌한이비인후과 원장) 씨 모친상, 정재웅(삼성전자 상무)·김용식(청담미즈 한의원장) 씨 장모상 = 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4일 오전 11시, 02-3010-2000

▲김영옥 씨 별세, 염창민·창선(리더스 헬스케어 영상의학과 과장)·창우(신중양 예식장 대표) 씨 모친상, 전병을(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씨 장모상 = 2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4일 낮 12시 30분, 02-2019-4003

▲전정희 씨 별세, 임종섭(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씨 모친상 = 2일, 경기도 광

주시 근지암 농협장례문화원 204호, 발인 4일 오전 8시 30분, 031-798-9750

▲이옥자 씨 별세, 한상진(의정부시청 도시주택과장) 씨 모친상 = 2일, 의정부보람 장례식장 2호실, 발인 4일 오전 10시, 031-856-9902

▲예수봉 씨 별세, 예창해(현대건설 차장)·아리 씨 부친상, 최규식(KBS 기자) 씨 장인상 = 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일 오전 10시, 02-2227-7580

▲정기현(전 한국전력 총무국장) 씨 별세, 정욱(삼성SDS부장)·지인·수영(삼성증권 지점장) 씨 부친상, 김형섭·이찬우(삼성증권 상무) 씨 장인상, 김재택(KB

증권 부장) 씨 시부상 = 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 20분, 02-3010-2251

▲임종필(전 서울대병원 홍보팀장) 씨 별세, 박정화(서울대병원 간호사) 씨 남편상, 임수빈·무성 씨 부친상 = 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5일 오전 9시, 02-2072-2022

▲김완중 씨 별세, 김남용(풀림출판사 대표·전 국민일보 기자)·경혜(신도중 교사)·영혜 씨 모친상, 현성준(경북고 교사)·이래운(고려대 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씨 장모상, 송숙·이미애 씨 시모상 = 3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 5일 오전 9시, 02-2227-7584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정부와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키플링 현상은 2016년부터 일기 시작한 제4차 산업혁명, 2019년 일본발 소재-부품-장비 위기 등에 정부와 기업(삼성)이 공동 대응하는 환경에서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이러한 키플링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의 주목을 받는 삼성전자의 1분기 획기적인 연구개발비 투자는 이를 상징한다.

삼성전자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정부의 관련 예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고 있다. 불황일수록 미래 투자를 하라는 경영학의 제1원칙을 삼성과 정부가 같이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연구개발비로 5조 3600억 원을 썼다. 이 기간 매출 59조8848억 원의 9.68%를 차지하는 규모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연구개발비와 매출 대비 비중이다. 삼성전자는 작년에도 20조 원을 연구개발비로 썼다. 이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올해 정부는 24조 원을 연구개발비로 책정했다. 삼성전자가 작년 수준인 20조 원을 넘을 게 확실하고 삼성SDI, 삼성전기 등 관계사를 합치면 역시 정부와 삼성전자의 올해 연구개발비 규모는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삼성전자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연구개발 전략에서 2인3각으로 뛰어왔다. 이를 상징하는 게 연구개발비다. 2001년 5조 원에 달했던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2008년 10조 원을 넘어선 뒤 2019년 20조 원을 기록했다.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미래를 위한 삼성전자의 승부수

10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각각 배증하는데 7년, 11년이 걸렸다. 이에 비해 2007년 5조 원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연구개발비는 2011년 10조 원을 달성한 뒤 2019년에 20조 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배증 기록에는 각각 4년, 8년 걸린 셈이다.

지난 20년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꾸준히 늘었으나 그 증가율은 2000년대의 10% 전후에서 2010년대 들어 떨어지기 시작해 1%대까지 내려갔다.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 예산 비중은 5%를 약간 밑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0년대 전반부 7% 전후를 유지했으나 2010년대 후반 들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해 올 1분기에는 9.7%까지 높아졌다.

이 같은 정부와 삼성전자의 연구개발 키플링 현상은 2016년부터 일기 시작한 제4차 산업혁명, 2019년 일본발 소재-부품-장비 위기 등에 정부와 기업(삼성)이 공동 대응하는 환경에서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이러한 키플링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의 주목을 받는 삼성전자의 1분기 획기적인 연구개발비 투자는 이를 상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세계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저이 신문이 운영하는 기업 재무 데이터인 '킵 팩트세트'에 따르면 세계 주요기업의 2020년 1분기(1-3월) 연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 급감했다. 2008년 9월 리먼 쇼크 이래 최악의 감소 비율이다. 일본과 유럽이 70-80%의 최고 감소 비율을 나타냈다. 항공업계의 경우 전체 회사가 적자로 전환했고, 자동차 업계의 실적 악화도 두드러졌다. 세계 전체로 2분기(4-6월)에도 약 40%의 이익 감소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현금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주주 배당을 줄이거나 미루며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선방하면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

세계가 감염 방지와 경제대책의 양립에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숨을 돌려 경제 대

책에 매진할 수 있게 된 우리 정부와 기업에겐 좋은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장을 돌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모습도 경제를 침식하는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AI(인공지능), 5G(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반도체 중심의 자동차 전자 부품을 4차 차세대 성장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삼성종합기술원을 찾아 차세대 AI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양자 컴퓨팅, 미래 보안기술, 혁신소재 등 차세대 미래기술 전략을 점검한 것은 경쟁업체를 완전히 따돌리기 위한 초격차 전략의 일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삼성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불황에 맞서 미래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정부와 보조를 맞춘 이 승부수가 한국경제를 구하고 미래를 담보하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정의 노동과 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 주류 된 노동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에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메시지가 상징하듯 최근 들어 노동계의 위상과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 민주노동의 조합원 수가 급증하여 설립 이래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조가 되었고, 이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 전후로 지지부진했었는데, 최근 들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89년 이래 가장 많이 늘었다. 노조 조직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다른 선진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처럼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일 수도 있지만, 우려되는 점 또한 적지 않다.

우선 노동조합의 정치 권력화이다.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이나 근로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도를 넘어 기성 정당과 같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현행법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주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요즘은 민주노동의 행보를 보면 정치 단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정치에 적극적이다.

거대 노조의 권력화 현상은 산업현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수년 전부터 건설현장은 '노조공화국'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노조의 '갑질'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로 자기 소속 조합원과 장비의 투입을 강요한 나머지, 두 집단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져 부상자가 속출하고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은 건설사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을 봉쇄하고 살벌한 세력 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한 건설노조는 채용공고에서 무술 유단자를 우대조건으로 내거는 등 노조공화국의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고 있다.

한편, 노동절을 이틀 앞둔 지난달 말에는 이천의 한 물류센터의 공사현장에서 38명의 근로자가 화마에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용접 시에 인화성 물질에 비화(飛火)된 것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위험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해온 소위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인재(人災)이다. 이번 참사는 사고 원인에서 피해 상황에 이르기까지 40명이 숨진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의 판박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형 참사 때마다 희생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하청근로자이거나 일용직 또는 이주노동자 등 노동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자들이라는 점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코로나 위기에 대비해 '충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명분은 충고용 보장이지만 속내는 기득권층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이나 해고 금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유독 사회적 책임이 동반되는 경사노위에는 참가하

지 않고 별도의 협의체를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 민주노동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그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려는 이기적인 발상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국노총 또한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노총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속셈인 듯하다.

작금의 상황은 양대 노총이 헤게모니 다툼을 벌일 만큼 녹록지 않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인 자영업자 수는 전년 대비 22만5000명이 줄어들어 2009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고용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임시일용직의 경우 전년 대비 12만4000명이 급감했다. 이들 대부분은 고용보장은 물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계 위기에 내몰린 취약계층이다. 코로나 위기로부터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미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된 노동조합의 양보와 타협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제인 제이콥스 명언 "새로운 발상은 오래된 건물에서 나온다." 지역사회 문제와 도시계획, 도시의 쇠퇴에 대해 관심을 쏟은 저술가, 사회운동가, 도시계획가. 고속화도로 건설 반대 캠페인과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저지하는 시민운동에 앞장선 그녀는 도시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살리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다. 그녀는 오늘 태어났다. 1916-2006.

☆ 고사성어 /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먼저 나서서 행동에 옮길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말. 자기도 원하던 일을 상대가 먼저 해주기를 바랄 때 쓰는 표현. 맹자(孟子) 공손추(公孫丑)가 원전. 제(齊)나라 왕과 의견 마찰로 맹자가 벼슬을 버리고 떠나려 하자 왕이 아쉬워하며 나중에 또 만나 조언을 받을 수 있을지 물었다. 그의 대답. "감히 청하지는 못할지언정 저도 진실로 원하는 바입니다[不敢請耳固所願也]."

☆ 시사상식 /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어떠한 마케팅 방법을 이용해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일련의 계획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말한다. 미국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아마존의 '원클릭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

☆ 우리말 유래 / 호로(胡虜)새끼 호로는 오랑캐 포로라는 뜻. 병자호란 때 조선이 청나라에 바친 공녀가 돌아오자 환향녀(還鄕女)라고 불렀다. 이들이 낳은 아이들을 '호로새끼', '호래자식'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다.

☆ 유머 / 기도 응답 시어머니가 자식 없는 며느리를 목사에 게 데리고 가 기도를 받으며 "아갸아, 무조건 '아멘 아멘'이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며느리의 아멘이란 말이 나오질 않자 다급한 시어머니가 대신 아멘을 외쳐댔다. 3개월 지나 시어머니가 임신을 해버렸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나경연 금융부/contest@

이불 속이 더 위험해

다. 그럼에도 통화는 '자신의 신념과 주장에 따른 결과'라고 끝낸다. '밀당' 형. 미친 듯이 애태우는 사람이다. 계속 전화를 남겨도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는 문자만 날아온다. 그럼에도 곧 연락을 준다는 마지막 문장에 하염없이 휴대폰을 바

라보게 된다. 잠시 다른 일을 보다가 전화가 울리면 목소리를 가다듬고, 헛기침을 하고, 질문을 되새긴다. 하지만 화면 속 이름은 그분이 아닐 경우가 99.9%다. '이불 밖은 위험해' 형. 앞의 두 가지 유형에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도대체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다. 이런 유형은 퇴

근 전까지 이동거리가 1km 미만인 사람이다. 의전용 차를 타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집무실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집무실 밖 상황에 관심이 없고 외부 평가에도 귀를 닫아 직원들만 애가 탄다. 한 기관장이 기자의 취재에 특정 피드백을 준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의 한 마디가 기관의 이점표가 되고, 현 상황을 평가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부담감은 기관장으로서 지고 가야 할 가장 가치 있는 무게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이불 밖은 위험해' 형이라면 오늘날만큼 집무실 1km 밖으로 용기를 내보기를 권한다. 이불 속이 더 위험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을 테니까.

# ‘고사 위기’ 화훼농가 살리려면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꽃의 달이라고 불린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해 모처럼 만에 가족들과 5월 봄꽃 축제를 만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어버이날, 로즈데이 등 화훼농가들엔 가장 큰 대목 특수를 누릴 수 있는 달 중의 하나가 5월이다.

하지만 며칠 전 화훼 업계 관계자를 만났을 때 이번 5월도 암울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2017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큰 타격을 받은 화훼농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고 그는 한탄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기업과 주요 대기업들이 앞장서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농가 돕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화훼농가에 송통을 조금 열어줄 수는 있지만 실효성엔 ‘덜세’라는 반응을 보였다. 화훼 소비 촉진 행사를 펼치면서 꽃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화훼농가 수입에는 직결되지 않는다고 그는 지적했다. 오히려 저가의 수입산 꽃만 늘어나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기현상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의 공공부문 화훼구매가 정부·지자체·공기업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나 공기업은 원산지 확인 없이 수입산 꽃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화훼구매에서 수입산 꽃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유통업자들이 저가 수입산 꽃을 선호하고 있는 데다 비싼 로열티 지급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국내 화훼농가의

## 데스크칼럼

신동민  
정치경제부장



생산단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화훼 총생산액은 2005년 1조 105억 원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을 걸으면서 2018년 5357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1인당 화훼 소비액도 2005년 2만870원에서 2018년 1만1888원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꽃 수입액은 2005년 2884만 달러에서 8080만 달러로 세 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결국 정부가 나서 수입산 꽃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철저히 수입산 꽃을 검역한다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업자들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국내 화훼농가를 보호하려다가 꽃 유통시장과 수출시장에 역풍이 불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정근 전 aT화훼사업센터장은 “단편적인 꽃 사주기 행사로 화훼농가를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화훼농가를 살리려면 문화적으로 접근해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고 필자에게 조언했다. 그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겐 펫(pet) 문화가 확산되면서 꽃 화분이나 꽃 화병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데 걸리려지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난(蘭)을 치는 문화도 점점 없어지고 있어 문화로서 복원시키지 않는 이상 백약이 무효하다”고 강조했다. 또 심 전 센터장은 “일본처럼 꽃 선물이나 화초 키우기가 문화로 정착되도록 어릴 적부터 문화 교육이 있어야만 화훼 농가가 살아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훼농가를 살리려면 결국 농식품부 혼자 힘이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일부 교육현장과 지자체에서 꽃문화 체험관이나 유아와 청소년에게 꽃키우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꽃문화 정착에 나설 필요가 있다.

어릴 적 여자친구에게 용기 내 꽃을 선물하면서 꽃말을 함께 선물한 적이 있는데 어떤 꽃을 선물해야 할지 꽃말을 찾느라 며칠을 지새운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 이렇게 다양한 꽃말이 있었는지 처음 깨달으면서 꽃말을 고를 때 느낀 달콤한 기분과 설렘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종교학대사전에 따르면 고대 아라비아 지방에선 다양한 꽃말을 나타내는 꽃다발로 편지 대신 주고받는 ‘셀람(selam)’이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이 셀람 풍습을 1714년경 스웨덴왕 칼 12세가 유럽에 전했고 이후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귀족들이 꽃말을 배워 연인에게 다양한 꽃말을 조합한 꽃다발로 마음을 전하거나 편지 대신 꽃다발을 보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이번 가정의 달을 맞아 앞으로 가족과 주위 친지들에게 꽃말이 담긴 국내산 꽃을 편지 대신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lawsdm@

## 사설

### 전 국민 고용보험, 재원대책 없이는 성급하다

청와대가 현재 직장 가입자 중심의 고용보험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세미나에서 “간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코로나 이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심화하면서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밖에 있는 근로자들이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2700만 명 수준인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3월 기준 1376만 명으로 50% 정도다. 건설일용직,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 고용원 등은 가입돼 있지 않다. 코로나 사태로 이들 직종의 근로자 및 실직자들부터 먼저 위기에 노출되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실업급여나 무급휴직 지원 등 고용 관련 지원대책도 고용보험 가입자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심 의제이고,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당의 공동 입법과제이기도 하다. 법과 제도의 사각(死角)에 있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보호와 생활안정 지원이 당면 현안인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적지 않다. 당장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이냐가 최대 난제(難題)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중기적인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측도 고용보험 확대의 방향은 맞지만, 단시간 내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월 급여의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 기금이 조성된다. 모든 근로자로 가입 범위를 넓히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 또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할 사용자가 없는 경우도 많다. 민주당측은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과 대기업의 규모에 따른 누진세 부과,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증대를 전제하고, 막대한 국민 세금도 더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 기금은 작년 2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코로나 충격에 따른 대량 실업으로 적자 폭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고용보험료 인상 또한 불가피해진다. 무엇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근로복지제도와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고, 그동안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구조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선행과, 확실한 재원조달 방안의 뒷받침 없이 성급하게 추진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박선현의 편



금융부 차장

### ‘좀비 자영업자’ 가려내기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의 1년 내 폐업률은 18.5%에 달한다. 3년으로 기간을 늘리면 46.9%나 된다. 아이টে이 좋거나, 이름값(브랜드)이 있더라도 절반 이상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문만 닫으면 다행이다. 먹고살기 위해 뛰어들어 생계형 창업은 빚이 남는다. 그 돈이 400조 원에 이른다. 채용 시장마저 막혀 새 일자리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다. 결국 대출은 고스란히 연체되고, 그 돈을 갚으려 자영업자들은 또 금융기관을 찾는다. 빚 굴레의 시작이다.

자영업자들의 공간 사정이 얼마나 악화하고 있는지는 수치로 가능하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개인사업자대출의 최초부실 발생률(신규로 90일 이상 연체에 진입한 대출에 대한 연체율을 전체 대출액으로 나눈 비중)은 1.05%를 기록했다. 전기 대비로 0.09%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로는 0.22%포인트

트 올랐다.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등 비은행만 따져보면 2.6%나 된다.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은 우리 금융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기업 대출과 경계가 모호하다. 그래서 ‘숨은 부채’로 불리기도 한다. 가계부채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데다, 일시상환 비중까지 높아 대출 질(質)도 안 좋다.

경기가 조금만 둔화돼도 곧바로 연체율이 치솟지만, 서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스를 들기도 어렵다.

결국 벼(건전 자영업)를 잘 키우려면 제때 피를 뽑아야 한다. 사태가 진정되면 영업에 제약이 따르지 않게 규제는 풀어주되, 좀비 자영업을 가려낼 수 있도록 대출 규제는 재정비해야 한다. 농사는 때가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들은 땅속 깊이 뿌리내려, 벼가 익는 걸 방해한다. 지금부터 가려낼 채비를 해야 한다.

sunhyun@

### 미리 보는 한 주 소비자물가 1%대 상승률 이어갈까

이번 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소비자물가와 국제 정세에 미친 영향, 그리고 지난해 가계의 소비 지출과 적자 규모가 관심사이다.

통계청은 4일(월)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3월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 1%대 상승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안 생활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식재료 수요가 늘어 달걀 가격이 20.3%, 돼지고기는 9.9%,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각각 6.7%, 7.3% 올랐다. 반면, 외출을 자제하면서 외식물가는 0.9% 상승에 그쳤고, 호텔숙박료(-5.2%)와 콘도이용료(-3.1%)는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목) 1분기 국제수입 규모를 담은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발간한다. 1~2월 국제수입은 46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 원이 덜 건넸다.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월 기준으로 집계 시작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같은 날 2019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인 소득 최하위 가구가 월평균 110만 원을 지출해 적자 살림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하위 20% 가구는 116만 원, 상위 20% 가구는 428만 원을 벌며 소비 양극화가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이벤트로는 8일(금·현지시간) 나오는 미국의 4월 비농업고용보고서가 주목된다.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70만 1000명이 줄면서 실업률도 4.4%로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집계에 따르면 4월 실업률은 16.1%로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193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는 2200만 개 줄었을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주 단위로 발표되는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는 3월 셋째 주부터 폭증해 지난주까지 7주 동안 3000만 건에 달했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실온에서는 제대로 보관하기 어려운 뿌리채소, 열대과일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 김치플러스로 비스포크 라이프를 완성하다

초정온 맞춤형보관으로 푸드마다 신선하게 지켜주고  
원하는 컬러와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는 더 예뻐지고  
가족의 크기에 맞춰 사이즈까지, 김치플러스 비스포크로 모두 맞추다

비스포크를 더 완벽하게

삼성 김치플러스 BESPOKE

